

11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6909.91 (-124.01)	820.64 (-16.28)		
↑ 금리 (한국은행)	↓ 환율 (원/달러)		
4.014 (+0.084)	1342.60 (-3.30)		

세대교체 택한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임기 중 리딩금융·최고실적 기록
양종희 회장 ‘연임론’ 예상 깨져
차기 회장 ‘미래 성장동력’ 과제
11월20일 임시주총서 새 회장 선임

올해 순이익 6조원 돌파를 앞둔 KB금융 그룹이 ‘안정’ 대신 ‘변화’를 택했다. 양종희 회장이 무난히 연임할 것이라 금융권의 예상



을 깨고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사진)이 차기 리더로 낙점됐다.

13일 KB금융에 따르면 최종 후보자인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된다.

◆ 리딩뱅크가 증명한 ‘투명·공정’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가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절차

를 시작한 것은 사실상 지난 4월이다. 두

차례 회의를 통해 ‘회장 자격요건 세부기

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검증 테이블에 올

릴 후보자군(Long List) 20명을 확정했

다. 임기 만료가 반 년 이상 남았지만 경

영승계절차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

고, 후보자 검증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다.

KB금융 회추위는 올 반기 보고서 기



이창동 감독 ‘가능한 사랑’ 베네치아 심사위원대상

즈를 취하고 있다. <관련기사 L4>

영화 ‘가능한 사랑’으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이창동 감독이 12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제83회 베니스 영화제 폐막식에서 포

/AP·뉴시스

준으로 조화준 위원장을 비롯해 여정성·최재홍·차은영·이명환·김성용·김선엽 등 7인으로 전원 독립이다.

5월에는 회추위원만 참석하는 주주간 담회를 개최해 주주가 바라는 회장의 자질과 역량, 경영승계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어 6월에는 최종 후보 선정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는 준칙을 결의하고, 기존 20명 후보군을 내·외부자 각 6명씩 총 12명으로 압축했다.

1차 최종 후보자군(ShortList)을 공개한 것은 7월이다. 내부 후보는 양 회장과 이재근·이창원 KB금융 부문장, 이환주 국민은행장 등 4명이었다. 외부 후보 2인은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과 익명을 요청

한 1인이다. 약 2개월간의 준비기간 이후 8월 27일에는 1차 인터뷰와 심사를 거쳐 2차 숏리스트를 내부 후보인 양 회장과 이 부문장, 외부 후보인 권 전 은행장 등 3명으로 압축했다.

<3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KRX ‘애프터마켓’ 오후 8시까지 운영

NXT와 퇴근 후 주식 경쟁구도

한국거래소(KRX)가 애프터마켓을 개설하면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와의 거래시간 경쟁이 본격화된다. 그동안 NXT가 선점해온 오후 시간대 거래에 한국거래소가 합류하면서 투자자들은 거래 종목과 수수료 등을 비교해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미 NXT에서 정규장 외 거래가 전체 거래의 4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퇴근 후 주식 거래 수요를 둘러싼 양 거래소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14일부터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시간외 접속매매)’을 운영한다. 기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던 시간 외 단일가 매매는 폐지되고, 정규장과 같은 접속매매 방식으로 주문이 실시간 체결된다. 앞서 NXT가 지난해 3월부터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운영해 온 가운데 한국거래소까지 애프터마켓을 열면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양 시장의 거래시간이 겹치게 됐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저녁 시간대 유동성이 정규장보다 낮은 점을 고려해 지정가·최우선지정가·최유리지정가만 허용하고 시장가 주문은 제한한다. 가격 변동폭은 정규장과 동일하게 전일 종가 대비 ±30%를 적용한다.

NXT의 애프터마켓 거래 수요는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4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국제유가 급등… 석유최고가격제 인상 우려

중동 發 에너지 불안 심화 조짐
2~3주 시차 유가가격 반영 예상

지난 상반기 전 세계를 강타했던 에너지 불안이 재차 심화할 조짐이 생겼다. 페르시아만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흐름은 최근 석유 값의 급변으로 귀결됐다. 국제유가가 4개월 만에 다시 100달러를 찍었다. 단발성 급등에 그치지 않을 시 국내 물가에 최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속 경기 위축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국제석유시장에서는 중동산두바이유 선물 가격이 지난주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섰다. 이어 북해산브렌트유와 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주말을 거치며 100달러대 거래에 합류했다.

이달 11일(현지시간) WTI 선물(10월 인도분)은 배럴당 100.0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그 전날인 10일 이미 100달러대에 진입했는데 9일 대비 하루 새 6.69%나 뛰었다.

5월 하순 내림세에 접어든 WTI 가격

은 7월 초 68달러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후 8월 들어 증가로 전환했다. 8월10일(82.13달러) 80달러를 넘긴 뒤 9월1일(90.22달러) 90달러를 돌파했다. 이어 100달러 선(9월10일 102.48달러)까지 불과 6거래일 만에 내달렸다. 브렌트유와 두바이유 선물도 11일 기준 각각 104.61달러, 114.91달러까지 치솟았다.

다만 국내 시세는 2~3주 시차가 있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에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다. 가격을 정부가 억제하는 석유최고가격제(주유소 판매가 상한제)도 여전히 시행 중이다. 그러나 국제유가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역시 상한 가격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부발 상한은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웃돈 3월 말~6월 말 기간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으로 현재(9월) 최고가격: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와 비교해 크게 높았다. 이달 하순 10차 상한 고시가 예정돼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M-커버스토리

검색·대화 기반 ‘AI 생태계’ 확장 속도전

네카오 ‘AI비서’ 새 관문

네이버 ‘AI탐’ 검색 의도·맥락 파악
쇼핑장소 탐색·예약 등으로 연결
카카오, 대화맥락 이해 정보 제안
매일 아침 일정 브리핑 등 ‘선택’

PC 시대 인터넷의 관문이 포털이었다면 모바일 시대에는 앱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이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다음 행동까지 수행하는 ‘AI 비서’가 새로운 관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AI 경쟁의 무게중심도 더 똑똑한 거대언어모델을 만드는 ‘모델 경쟁’에서 이용자가 매일 사용하는 서비스와 AI를 결합하는 ‘플랫폼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13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검색과 카카오톡

이라는 대규모 이용자 기반을 앞세워 AI 에이전트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가 검색에서 ‘실행’으로 영역을 넓힌다면 카카오는 일상적인 ‘대화’를 실행의 출발점으로 만드는 전략이다.

◆네이버, 검색에서 ‘실행’으로…초록창을 AI로

네이버의 출발점은 검색이다. 지난 6월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식출시한 대화형 검색 서비스 ‘AI탐’은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검색 의도와 맥락을 파악해 쇼핑과 장소 탐색, 지도 확인, 예약 등 실제 행동으로 연결한다.

네이버가 모바일 검색의 상징인 ‘그린닷’ 자리를 AI탐 중심으로 재편한 것도 변화를 상징한다. 일평균 5000만명이 방문하는 네이버 메인에서 AI를 별도 서비스가 아닌 검색의 기본 경험으

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AI탐은 정식 출시 이후 빠르게 이용자를 확보해 8월 초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네이버의 무기는 검색 뒤에 이어지는 자체 생태계다. 검색과 쇼핑, 지도, 플레이스, 예약, 부동산 등 이미 확보한 서비스와 데이터를 AI로 묶을 수 있다. 이용자가 맛집을 찾은 뒤 다시 지도와 예약 서비스를 찾아가는 대신 하나의 AI 흐름 안에서 탐색부터 실행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연내 부동산·건강 분야 전문 에이전트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네이버의 광고·커머스 사업과도 직결된다. AI탐 베타 기간 상품과 장소 카드 클릭률은 각각 20% 이상을 기록했다.

<3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국힘, “이재명 정권이 하는 것은 개혁 아닌 개혁…설악은 정책에 국민 고통 최대화”
▲장동혁, 용혜인 사퇴에 “장관보다 조직 선택…‘좌파 카르텔’ 파헤쳐야”

/사진 뉴시스

▲주진우, “김승원 가족 운영 협동조합, 수원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특혜 의혹”
▲한동훈, “민주 女의원들, 남편 룸살롱 브로커에 ‘오빠’ 소리 들어도 괜찮냐”

▲김민석, “용혜인과 진보 세력 연대·정치 개혁 논의에 박차 가할 것”
▲조국혁신당, 조강특위 심사 결과 발표…“조국 평택시 지역위원장 선정”

재계 총수 현장경영

최태원 회장, 제조혁신 박차

(SK그룹)

“울산 ‘AI 시티’ 만들어 갈 것”

울산포럼서 예술 결합 등 발전방향 제시
AI 산업 지속가능성 위해 수익모델 확보
대규모 데이터 플랫폼 구축 필요성 강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울산을 인공지능(AI)과 제조업, 예술이 결합된 ‘AI 시티’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제조 현장의 AI 전환(AI)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시민 생활 전반에 AI를 접목해 산업도시 울산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3일 SK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지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2026 울산포럼’ 클로징 세션에서 울산의 미래 발전 방향으로 ▲제조AI ▲모두의 AI ▲아트(Art) 울산 등 세 가지 축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미래 울산은 AI 시티의 모습이 돼야 한다”며 “제조AI에 기술과 제조 관련 솔루션 및 데이터를 더해 발전시키고, 모두의 AI를 통해 울산 시민들의 행복을 높이며 도시에 감성을 더해 예술이 있는 산업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조AI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모두의 AI’도 울산 AI 시티 구상의 핵심이다. SK가 구상하는 시민용 AI 에이전트는 개인 맞춤형 공공·복지 혜택과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을 비롯해 행정·교통·의료·교육 등 생활밀착 서비스를 연결하고 이용자의 요청을 직접 수행하는 실행형 AI로 구성된다. 산업 현장을 넘어 시민 일상까지 AI 활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울산 남구 SK이노베이션 울산CLX 현장경영(MBWA)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SK그룹

최 회장은 AI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익 모델 확보도 강조했다. 그는 AI 경쟁의 핵심 과제로 속도·규모·안전에 더해 비즈니스 모델과 지속가능성을 제시하며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 만큼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상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SK는 울산의 제조 기반과 AI 인프라를 결합해 지역 특화 AI 생태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유경상 SK텔레콤 AI CIC장은 포럼에서 울산 AI 인프라와 ‘모두의 AI’를 결합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 회장은 AI 시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생각 근육’, ‘공감의 힘’, ‘적응 근육’, ‘피지컬 근육’을 제시하며 기술 활용을 넘어 사랑을 이해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신동빈 회장, 산학협력 확대

(롯데그룹)

반도체 소재 등 경쟁력 강화

‘롯데 x KAIST R&D센터’ 준공식 참석
지속가능성 문제 연구 산학협력 거점
바이오·헬스케어 등 그룹 사업 연계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 11일 대전 KAIST 본원에서 열린 ‘롯데 x KAIST R&D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준공식에는 배종식 KAIST 총장과 생명화학공학과 교수진 등이 참석했으며, KAIST는 연구 인프라 조성과 산학협력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신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롯데 x KAIST R&D센터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성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산학협력 거점이다. 롯데가 지원한 건축 기부금과 KAIST 자체 기금으로 조성됐다.

R&D센터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4298㎡ 규모다. KAIST의 연구 역량과 롯데의 산업 현장 경험을 결합해 원천 연구부터 실험, 시제품 제작, 기술사업화까지 수행한다.

센터에서는 ▲바이오 지속가능성 ▲탄소중립 에너지·소재·공정 ▲첨단식품·헬스케어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시스템대사공학, 바이오연료·플라스틱, 그린수소,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분야를 연구한다. 연구 과정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예정이다.

롯데와 KAIST는 반도체 소재, 지속가능 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등 계열사별 전략 기술 연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를 통해 확보한 기술은 롯데그룹의 관련 사업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신 회장은 “R&D센터가 학교와 기업의 경계를 넘어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산학협력의 거점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교수진과 학생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 11일 대전 KAIST(카이스트) 본원에서 열린 롯데 x KAIST R&D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신 회장은 연구 인프라 조성과 산학협력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롯데지주

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롯데가 동반자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는 2012년 석·박사 위탁교육을 시작으로 기술이전과 인력 교류 등 KAIST와의 협력을 확대해 왔다. 2022년에는 ‘롯데케미칼-KAIST 탄소중립연구센터’를 설립해 공동 연구를 시작했으며, 탄소중립 분야 8개 과제를 수행해 특허 15건을 확보했다.

배종식 KAIST 총장은 “오랜 기간 KAIST의 인재 양성과 연구에 함께해 온 롯데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KAIST의 연구 역량과 롯데의 산업사업화 역량을 결합해 연구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산업 현장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지속가능한 미래의 해법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비정상 기차표 예매 차단 성과… 실제 암표거래 제재는 ‘제자리 걸음’

코레일, 매크로 차단 솔루션 주요
암표 단속에도 영업성 판단 등 문턱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 2월 차단 솔루션 도입 이후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기차표 예매를 차단한 건수가 급증했지만, 암표 거래를 단속해 수사의뢰를 맡겨도 실제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헛심을 쓴다’는 지적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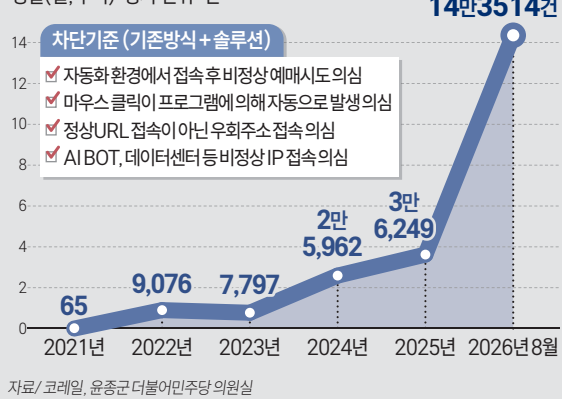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선·경기 안성시)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연도별·월별 매크로 프로그램 탐지 및 명절 및 평시 차단 건수’는 ▲2021년 65건 ▲2022년 9076건 ▲2023년 7797건 ▲2024년 2만5962건 ▲2025년 3만6249건 ▲2026년(8월까지) 14만351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월 코레일이 매크로 차단 솔루션을 도입한 이후 접속 차단 건수가 전년 대비 약 4배 정도 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 탐지에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레일은 매크로 차단 솔루션을 이용해 1분에 150~500회의 비정상 접근이 있을 시 차단하던 기존 방식에 더해 ▲자동화 환경에서 접속 후 비정상 예매 시도 ▲마우스클릭이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발생 ▲정상 URL을 통한 접속이 아닌 우회 주소 접속 ▲AI(인공지능) 봇, 데이터센

코레일 매크로 프로그램 탐지·차단 건수

명절(설, 추석)·평시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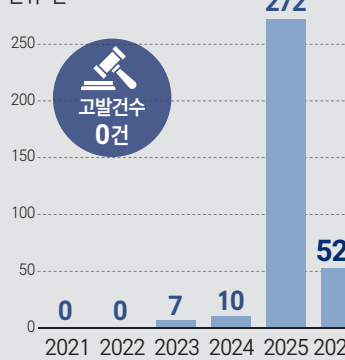
터 등 비정상 IP 접속이 의심될 경우 ‘매크로가 의심된다’는 창을 해당 행위자에게 띄우며 접속을 차단한다.

코레일은 암표 거래 원천 차단을 위해 웃돈을 얹어 승차권을 거래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3년간 코레일 회원 가입 제한 조치에 나서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수사의뢰도 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실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에 이르기까지 한계가 있어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레일이 윤종군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암표거래 의심 신고·제보 접수 건수’에 따르면 코레일은 암표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 기차표 관련 글 삭제 요청 ▲암표 제보방 운영(2023년

암표거래 수사의뢰 건수

단위: 건



9월~) ▲미스터리 쇼퍼(코레일 직원이 구매자로 위장해 접근)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3년 11건 ▲2024년 109건 ▲2025년 83건 ▲2026년 26건의 신고를 받았고 ▲2023년 7건 ▲2024년 10건 ▲2025년 272건 ▲2026년 52건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나 경기도남부경찰청 등에 수사의뢰했다.

다만, 경찰이 코레일에 수사의뢰를 받아 입건한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처벌이나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적다고 한다. 승차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암표 거래를 하거나 암표 거래를 알선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철도사업법 시행령은 암

암표거래 처벌 수위



표 거래의 상습성, 영업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 측 설명에 따르면 코레일 등이 암표 거래를 단속해 수사의뢰를 해도 사기에 준할 정도가 돼야 입건해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나머지는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과거와 같이 철도역사 내에서 암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암표 거래가 유행하다 보니, 암표 거래 후 오픈채팅방을 폭파할 경우 자료가 남지 않아 추가 수사가 어려워진다는 설명도 있었다.

형사처벌 외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상습성’이나 ‘영업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쉽사리

처분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운전 중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기차표 암표 거래 관련 과태료 처분을 규정한 철도사업법의 경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암표 거래 행위자의 상습성이나 영업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이나 공연법의 경우 프로야구 등 운동경기 암표거래나 공연 암표 거래 처벌하기 위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을 뒀다.

매년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국회엔 암표 거래 금지규정과 제재규정을 보완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지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윤종군 의원은 “매년 명절마다 귀성·귀경 기차표 확보를 위해 예매 경쟁이 벌어지는 만큼,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암표 확보 및 거래는 엄단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암표거래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 내실화에 머리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실적 기대 꺾여도 목표가 ‘쑥’… 증권가 ‘40만전자·300만닉스’

삼성전자·하이닉스 3분기 전망 하향
환율·유가 부담에 ‘200조’ 기대 흔들
증권가는 양사 목표주가 잇단 상향
AI 수요에 메모리 공급 부족 지속
빅테크 데이터센터 투자 등 확대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격화와 급등하는 유가 및 미국 국채 금리 등 여러 악재에 반도체 업체들의 3분기(7~9월) 실적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 200조원을 기대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 전망도 실현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증권사들은 반도체 업황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며 ‘40만 전자, 300만 하이닉스’ 주가를 정당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3분기에 삼성전자가 과연 어떤 수치를 내놓을까. 국내의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분기 200조 달성 기대 하락

13일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 이익은 각각 111조원, 77조원으로 합산 188조원으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두 회사가 합산 200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봤었다. 지난 7월 초만 해도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삼성전자 115조원, SK하이닉스



ChatGPT로 생성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CI 이미지.

84조원으로 합산 199조원에 달했다.

올해 전체 실적도 한풀 꺾였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은 377조원, SK하이닉스는 263조원이다.

원화값이 뛰면서다. 상반기 환율 급등 효과를 누렸던 이들 기업이 이제는 반대로 환율 급락을 우려해야 할 형편이 된 것이다.

DB증권은 삼성전자3분기실적이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면서 ‘견

조한 메모리 출하와 판매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비우호적 환율과 시장 예상을 밑도는 MX(완제품 부문) 부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환율 변동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내외 투자와 각종 비용 집행 계획을 살펴보는 등 올해와 내년 사업 계획을 재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피 주역 반도체 목표가 쑥~

증권사들은 두 회사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권사들이 내놓은 삼성전자 평균 목표주가는 48만8409원이다. SK하이닉스 평균 목표주가는 330만5652원이다.

우려의 시선을 보냈던 증권사들도 다시 목표주가를 올려 잡고 있다. 이달 미래에셋증권과 DB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각각 310만원, 230만원으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목표주가 40만원을 제시하며 눈높이를 올려잡았다

증권사들이 다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낙관하는 이유는 수요-공급 불균형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요는 강하지만, 제조사는 세계적으로도 소수에 불과하다. 공장 증설에는 시간이 필요한 탓에 공급이 제한적이다. 증권가에서는 ‘아스트라’ 출시를 계기로 국내 반도체주도 본격적인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주가 기대는 코스피까지 밀어올릴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코스피 가현 수준에서 약 80%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유지했다.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에도 글로벌 빅테크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계속되면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황이 시장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건설 경쟁으로 메모리와 저장장치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티모시 모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 수석 주식전략가는 지난 4일 인터뷰에서 같은 흐름이 2027년에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빅테크의 내년 자본지출 규모는 1조2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종전 전망치인 8000억 달러보다 50% 늘어난 규모다.

AI 사업이 당장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투자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모 전략가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계속 지출해야 한다”며 “이는 메모리에는 좋은 일이다. 메모리를 매우 많이 필요로 하는 컴퓨팅 수요를 끌어올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투자가 이어질수록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와 저장장치 수요도 늘어난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반도체 반등에도 떠나는 개미들… 금·원전으로 눈 돌렸다

이달 삼전·닉스 13조 순매도
4개월 연속 순매수 끝내고 ‘팔자’
레버리지 규제에 투자심리 위축

최근 조정 국면에 빠졌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두 반도체의 어지러운 금동락을 경험한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주가 반등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1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5조2120억원 순매도했다. SK하이닉스

도 7조8180억원어치 처분했다.

앞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5월 이후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순매수하며 주가 하단을 지지했다.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의 순매수액은 지난 5월 9조6050억원에서 6월 17조119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후 7월 5조470억원, 8월에는 2조380억원으로 순매수 규모를 점점 줄였다 이달 들어 ‘팔자’로 돌아섰다.

SK하이닉스 역시 개인이 지난 5월과 6월 15조원대 순매수세를 보였으나, 7월 9조100억원, 8월 1조740억원으로 매수 규모를 줄였다.

지난주 말 오픈AI가 새 인공지능(AI) 모델 ‘아스트라’를 공개한 이후 고용량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메모리 업황 개선 기대감이 번졌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반도체주를 대거 판 모습이다.

3분기 들어 코스피 상승 탄력이 둔화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데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이후 반도체주 투자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하며 환전 부담이 줄어들자 미국 기술주로 향한 투자자들이 늘어난 영향도 있어 보인다.

ETF 투자도 같은 흐름이다. 반도체에서 금, 원전 등으로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특정 업종(원자재 포함·인버스 제외)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ETF 중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ACEKRX금현물’ (217억원)이었다.

그다음으로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206억원),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 (126억원), ‘TIGER KRX금현물’ (117억원), ‘TIGER코리아원자력’ (108억원),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89억원), ‘KODEX AI전력핵심설비’

(38억원) 순으로 순매수액이 많았다.

반면에 같은 기간 개인은 반도체 관련 ETF를 대거 순매도했다.

‘KODEX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1791억원),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875억원),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773억원),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621억원), ‘TGIER 반도체TOP10’ (-538억원) 등이 순매도액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는 코스피가 고공 행진하던 지난 1~6월 개인의 ETF 순매수세가 반도체 관련 상품에 쏠렸던 것과 대비된다.

/신하의 기자 godhe@



카톡 AI, 상품·장소 추천… 향후 구매까지 연결

》1면 ‘검색·대화 기반…’서 계속

AI챗을 11회 이상 방문한 이용자는 1회 방문자보다 상품 클릭은 2.7배, 장소 클릭은 2배 높았다. AI가 답변만 제공하는 서비스를 넘어 이용자의 실제 소비 행동을 연결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실행’으로… 카톡 자체가 AI 비서

카카오톡은 검색창 대신 카카오톡톡을 택했다. 새로운 AI 앱으로 이용자를 끌어오기보다 이미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메신저 자체를 AI의 입구로 바꾸는 방식이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이용자의 대화 맥락을 이해해 필요한 정보를 먼저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가 직접 질문하지 않아도 ‘선택’으로 도움을 주고 매일 아침 일정 브리핑과 정보 검색, 상품·장소

추천 등을 제공한다. 향후에는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안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구매까지 연결하는 ‘에이전트 AI’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외부 서비스와의 연결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카카오톡은 지난 11일 ‘챗GPT 포 카카오톡’의 AI 에이전트 서비스 ‘카카오톡즈’에 다이소물·신한카드·신세계면세점·LF몰 등 7개 파트너 서비스를 추가했다. 카카오톡과 계열사, 외부 파트너를 합쳐 현재 28개 서비스가 연결돼 있다. 특히 외부 연동 서비스는 17개로 자체 서비스 11개를 처음 넘어섰다.

카카오톡이 AI를 통해 카카오톡톡의 서비스까지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용자는 하나의 대화창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호출하고 AI가 이를 연결한다. 카카오톡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메신저에서 사람과 AI, 외부 서비스를 연결

하는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히는 셈이다.

◆검색창 다음 주인은 누구… AI 시대 ‘첫 화면’ 경쟁

글로벌 빅테크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구글은 검색에 AI 모드와 에이전트 기능을 결합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AI 모드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한 이후 월간 활성 이용자는 10억명을 넘어섰다. 오픈AI 역시 챗GPT에서 상품 탐색과 비교 등 쇼핑 기능을 강화하며 대화창을 정보 검색을 넘어 행동이 시작되는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

결국 AI 시대 플랫폼 경쟁의 핵심은 ‘누가 가장 좋은 답을 내놓느냐’에서 ‘누가 이용자의 다음 행동까지 가져가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AI가 검색과 추천을 넘어 예약과 구매, 결제까지 수행한다면 이용자가 여러 앱과 웹사이트를 직접 찾아다니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최빛나 기자 vitna@

실적도 주가도 최고… KB금융, 새 3년 시험대

》1면 ‘세대교체 택한…’서 계속

최종 후보자 1인은 회장자격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KB금융그룹의 비전과 가치관을 공유 ▲장단기 간전 경영 노력 등 5개 항목과 25개 세부기준을 토대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투표를 통해 확정했다.

조 회주위원장은 “이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고 설명했다.

◆어깨 무거워진 차기 회장

KB금융의 실적과 주가가 모두 사상 최고인 상황에서 만큼 차기 회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임기는 11월 21일부터 3년이다. 현 양 회장의 임기 동안 KB금융

의 실적은 2023년 순이익 4조6319억원으로 리딩금융의 자리를 탈환한데 이어 2024년 5조782억원으로 ‘5조 클럽’에 입성했다. 2025년 순이익은 5조8430억원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올해는 상반기 순이익만 3조8846억원으로 ‘6조 클럽’을 달성할 전망이다. 5만원대였던 주가는 최고 19만원선까지 올랐다.

회주위가 주문한 부분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다. 회주위는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책임자로 이 부문장을 선택했다”며, “금융산업이 재편되고 마니무브가 본격화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KB금융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훌륭히 이끌어낼 만한 역량이 있는 CEO 후보”라고 평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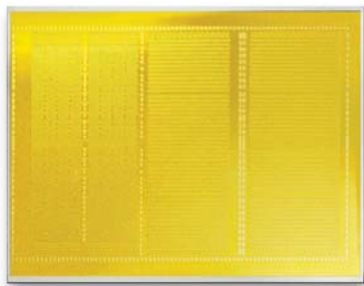
HBM 품귀에 中 AI칩값 폭등… 삼성·SK 협상력 힘 실린다

화웨이·캠브리콘, AI 가속기값 인상
美 규제·HBM 수급난에 조달 부담

삼성·SK, HBM4 공급 확대 속도
2분기 양사 합산 점유율 83%
마이크론 증산·中 국산화는 변수



SK하이닉스 HBM4E.



/SK하이닉스

중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들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조달 비용 상승으로 제품 가격을 잇달아 올리면서 HBM 공급 부족의 여파가 완제품 시장까지 번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첨단 HBM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급·가격 협상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와 캠브리콘 등 중국 AI 반도체 업체들은 최근 차세대 AI 가속기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화웨이는 '어센드 950DT' 제시 가격을 두 달 전보다

20~50% 높였고, 캠브리콘도 차세대 AI 칩 '690' 가격을 20~30% 인상했다. 메타엑스와 일루비타 코어엑스 등도 비슷한 폭으로 가격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I 인프라 구축 경쟁으로 글로벌 HBM 수급이 빠듯해진 데다 중국은 미국의 첨단 HBM 수출 규제에 조달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비공식 유통망에서 거래되는 HBM은 중국 외 지역의 공급 가격보다 수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메모리 비용 상승이 AI 가속기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다.

HBM 공급 부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공급사의 협상력도 주목받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맞춰 HBM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생산능력 확충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급자 우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박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도 지난달 미국 인디애나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30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이 같은 수급 환경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4 공급 확대

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양사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하반기 HBM4 공급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3분기 HBM4 매출이 전 분기 대비 3배 이상 늘고, 하반기에는 HBM4가 전체 HBM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SK하이닉스도 2분기부터 주요 고객사에 HBM4 공급을 시작한 데 이어 하반기 생산량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 점유율도 양사가 앞서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매출 기준 50%, 삼성전자는 3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양사 합산 점유율은 83%다. 마이크론은 18%를 기록했다.

다만 공급사 간 경쟁 확대는 변수다. 마이크론은 올해 말까지 HBM 생산능력을 월 10만장 수준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생산능력인 각각 월 15만~20만장에는 못 미치지만, 마이

크론은 HBM4 생산 비중도 빠르게 높이고 있다.

중국도 자체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CXMT는 HBM3E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캠브리콘과 알리바바 계열 T-Head 등이 중국산 HBM 적용을 위한 테스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공급자 우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마이크론의 증산과 중국의 HBM 국산화 속도는 향후 경쟁 구도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HBM은 수요 증가 속도에 비해 단기간에 공급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제품인 만큼 당분간 공급사에 유리한 수급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마이크론의 증산과 중국 업체들의 국산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구도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자율주행 '아트리아 AI' 핵심, 데이터 확보·활용에 달려

현대차 '자율주행 미디어데이'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 역량 집중
年 700만대 차량 기반 데이터 확보

"자율주행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얼마나 빠르게 학습하고 그 결과를 실제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자율주행 자회사 포티투닷(42dot) 본사에서 열린 '자율주행 미디어 데이'에서 박민우 현대차·기아 AVP 본부장(사장)은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 학습 속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개된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차량 영상에는 복잡한 도심에서 선행 차량이 갓길에 차량을 멈추자 스스로 차선을 변경해 주행을 이어가고 옆 차선에서 끼어드는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해 대응하는 등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민첩하게 대처하며 안정적인



박민우 현대차·기아 첨단차플랫폼(AVP)본부장 사장 겸 포티투닷 대표가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포티투닷 본사에서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주행을 이어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해당 차량은 아이오닉6로 현대차그룹이 자체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 '아트리아 AI'와 윈드실드에 2개, 측면에 4개, 앞뒤 어안렌즈로 2개 총 8개의 카메라와 전방 범퍼의 레이더 1개가 탑재돼 '레벨2+' 수준을 확보했다.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 기술 기반 레벨2+ 기능을 2028년 상반기, 레벨2++ 차량을 같은 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

다. 자체 개발한 아트리아 AI는 2029년 하반기 양산차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실제 차량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자율주행이 지원되는 도로와 주행 조건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차량 센서와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해 데이터 활용 효율을 높이고 실제 주행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다시 기술 개발에 투입하는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데이터다. 현대차·기아는 전 세계 190여개 국가 및 지역에서 연간 700만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어 대규모 실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고, 성능이 개선된 소프트웨어를 다시 차량에 적용하면 새로운 주행 데이터가 축적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포티투닷은 이미 아이오닉5 기반 데이터 수집 차량 40여대를 운영하며 차량 한 대당 매주 80시간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위험하거나 재현이 어려운 상황은 가상공간에서 구현해 AI 학습에 활용한다.

'스페셜 이벤트 리코더(SER)'도 데이터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다. 급가속·급제동이나 불안정한 차간거리, 자율주행 기능 해제 등이 발생하면 전후 15초의 주행 데이터를 자동 저장한다.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유니언' 구축도 추진한다. 현대차그룹 내 각 조직과

계열사가 데이터를 단순 교환하는 것을 넘어 센서와 데이터 형식을 통일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센서 체계 역시 엔비디아의 'DRIVE 하이페리온 10'을 중심으로 표준화한다.

포티투닷은 차세대 기술로 VLA(Vision-Language-Action)를 준비한다. 포티투닷은 시각 정보와 언어적 추론, 행동 생성을 통합한 VLA 기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기존 E2E 모델보다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높여 자율주행을 넘어 로보틱스 등 '퍼지컬 AI'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결국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전략은 얼마나 빠르게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학습에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박민우 사장은 "자율주행 경쟁의 본질은 결국 학습 속도의 경쟁"이라며 "충분히 검증된 기술만 차량에 적용한다는 원칙 아래 개발 속도와 안전성을 함께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올해 연말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아트리아 AI를 탑재한 자율주행 실증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휴머노이드·센서용부터 뚫는다… 전고체 배터리 주도권 경쟁

삼성SDI·파나소닉, 2027년 양산

삼성SDI를 비롯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이 서로 다른 제품 전략과 양산 계획을 앞세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경쟁은 삼성SDI와 CATL이 생산 시점으로 제시한 2027년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기술을 선도해 온 일본에서는 파나소닉에너지가 올해 4분기 산업 기기용 제품의 샘플을 출하하며 양산 준비에 나선다.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의 첫 상용화 대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시하고 자체 브랜드인 '솔리드스택(SolidStack)'의 파워치형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2027년

하반기 양산 역량을 확보한 뒤 전기차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솔리드스택에는 자체 개발한 고체전해질 소재와 무음극 기술이 적용돼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높였다. 그동안 여러 고객사에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공급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관련 프로젝트 협의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가 휴머노이드용 제품으로 초기 시장을 공략한다면 파나소닉에너지는 산업기기·센서용 소형 제품부터 양산 경험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했다.

파나소닉에너지는 올해 4분기 코인형·각형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출하하고 고객사 평가를 거쳐 1~2년 안에 양산에 들어갈 방침이다. 신제품은 150℃의 고온 환경에서 평균 100시간 작동하는 내구성을 확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존 개발품의 사용 한계 온도인 125℃보다 25℃ 높은 수준이다. 의료기기의 고온 멸균 공정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SDI와 생산시점을 다투는 CATL은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다. 2027년 생산 물량 기준의 소규모 생산을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방침이다. CATL은 현재 자사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 성숙도를 9단계 중 4단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7년 제한적인 생산은 가능하지만 제조 난도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2030년 이전에 수백만대의 차량에 공급할 수준으로 생산량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거래종목 2766개 vs 거래수수료 40% 저렴

(KRX)

(NXT)

>> 1면 'KRX '애프터마켓'...'서 계속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NXT 전체 거래량 가운데 애프터마켓이 차지한 비중은 19.34%였다.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21.30%에 달했다. 월별 거래대금 비중도 1월 17.74%에서 6월 20.54%, 8월 22.86%로 높아졌다.

프리마켓까지 포함하면 정규장의 거래 비중은 더욱 커진다. 이달 들어 NXT 전체 거래량의 43.35%, 거래대금의 41.34%가 프리·애프터마켓에서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거래 종목 수를 앞세워 NXT와 경쟁한다. 애프터마켓에서는 투자 경고 종목과 정리매매 종목 등 일부 관리 종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종목은 약 2766개로, NXT의 거래 가능 종목인 약 600개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참여 증권사 규모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에는 전체 회사 가운데 38개 증권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 거래대금 기준 95.2%에 달한다.

반면, NXT는 수수료와 프리마켓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NXT의 거래 수수료는 한국거래소보다 20~4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NXT는 현재 프리마켓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장전 거래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한국거래소의 프리마켓 도입은 내년 말로 예정돼 있어 당분간 장전 거래에서는 NXT가 우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신하은 기자 godhe@

AX의 좋은 쓰임

공무원에게는
업무의 제약을 덜고

주민에게는
공공행정의 공백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더 넓게,
필요한 순간에 더 빈틈없이

필요에 답하는 기술로
더 잘 닿는 공공행정.
AX의 좋은 쓰임입니다.

5G



5G 업무망

사무실 밖에서도 업무 환경은 그대로
5G 인프라와 전용회선 기반 보안망으로
안전하게 사내 업무 환경에 연결됩니다



AI 당직봇

야간·휴일 민원 전화도, AI가 먼저 응답
지자체 특화 AI봇이 야간·휴일 민원 전화를 1차 응대해
업무부담은 줄어 들고, 민원대응은 더 빈틈없이 집니다

KT AX는 이미 많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QR을 통해
지자체에 필요한
AX Solution을 만나보세요

AI라는 세상을 모두에게
AX Platform Company **kt**

與, 용혜인 사퇴로 김승원 방어 총력… 이번주 청문회 격돌

용혜인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직 수행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번주 5개 부처 청문회 예정

이번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런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주 만인 13일 후보자직에서 전격 자진 사퇴했다. 각종 의혹과 비례대표 의원직·장관직 겸직 논란이 이어진 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실상 결단을 요구하면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의 관심은 야권의 공세가 집중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쏠리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순으로 열린다.

이런 가운데 야권의 거센 공세를 받던 용혜인 후보자가 이날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사퇴 의사를 표했다.

용 후보자는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2차 개각에 따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주 만인 13일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사진은 김승원(왼쪽)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뉴시스

다. 그는 “지난 2주 동안, 후보자 검증은 포기한 채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와, 사실 확인은 뒷전으로 미루고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끝없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직접 해명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 측에서 사퇴 요청을 하면서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

야 하는 역할인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앞서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을 듣고 있다”며 “국민의 여러 목소리와 판단은 그 자체로서 존중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론의 부정적인 기류 역시 용 후보자의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에 따르면 용 후보자

가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합’ 응답이 51%로, ‘적합’ 응답 26%를 크게 웃돌았다.

용 후보자의 사퇴로 인사청문회 정국의 핵은 김승원 후보자가 된 모양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제넨셀 코로나 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주가 조작 관련 의혹,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익·급여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용 후보자가 사퇴한 이날에도 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계속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가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약처장에게 청탁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한 의원은 “식약처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고 하니까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내고 통화해 청탁을 전달했다”며 “단 2주 만에 승인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와 연관된 제약사 오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인재 판사의 아들이 이후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점을 언급하며 채용과정에서의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승원 후보자는 공소 취소 안하겠다는 한마디를 못 한다”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안정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소요 기간은 11일로, 코로나19 치료제 신속심사 프로그램에 따른 평균 10일보다 빠른 것도 아니었다”며 “제넨셀의 개발 물질과 관련해 중대한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위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경수 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지지율 38%’ 李, 추석 전 국민 앞에 선다

40·50대 부정평가, 긍정평가 앞서
장관 후보자 논란 등 직접 설명
17~18일쯤 대통령 기자회견 유력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급변동 등으로 하락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개각과 호르무즈 해협 기어 문제로 30%대를 기록했다. 임기가 3년 8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면 국정 동력이 완전히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이 대통령이 이번 주 중 현안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지난 8~10일 실시해 11일 발표, 전화면접방식)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를 기록했다. 전화면접 방식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민주진영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꼽히는 40·50대에서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6·3 지방선거 전 60%대였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선거 직후부터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족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등으로 지속 하락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 연임 개헌과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논란 등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호르무즈 해협 기어 문제가 불거지며 지지율은 더욱 하락했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다.

우선 지명 이후 ‘의원·장관 겸직’ 논란과 ‘가족정당’ 논란, ‘언더조직’ 논란 등으로 집중 공세를 받던 용혜인 후보자는 결국 이날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것 만으로는 분위기 반전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난제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파병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청와대나 정부 측 분위기다. 하지만 범여권에 속하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은 한·중양아시아 정상회의 등 정상외교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17~18일쯤이 유

력하다. 이 대통령 역시 최근 현안에 대해 국민 앞에서 설명할 의사가 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논란이나 호르무즈 해협 기어 방안뿐 아니라, 공소취소·연임 개헌 논란, 부동산 정책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 특유의 ‘솔직 화법’으로 직접 입장을 밝히면 논란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여론에서도 기자회견이 분위기를 전환해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여론관계자는 “이미 분위기가 굳어진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명한다고 해서 달라질지는 모르겠다”는 비판적인 전망을 내놨다.

/서예진 기자 syj@

민주당 “메가 10 기구, 메가 12로 확대”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김민석 대표 “성장·공존 병행”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취임 후 출범시킨 ‘메가 텐(10)’ 기구를 ‘메가 트웸블(12)’로 확대하고 경제 성장과 공동체 공존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임기 첫 1년의 과제였던 회복과 성장은 대통령님의 리더십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성장률, 수출, 증시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며 “이제, 1년 차가 지난 지금부터는 메가 성장의 추진과 함께 성장의 그늘 해소, 품격 있는 기본 사회 즉 품격 사회 추진 병행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로 성장과 공존의 병행 추진이다. 당은 정부의 메가 성장을 전력 지원하느 동시에 공동체의 공존을 위한 정책과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당장 현재 당이 출범시킨 ‘메가 텐’ 특별 기구를 ‘메가 트웸블’로 확대하고 2027 세계 청년대회 지원과 함께 AI 시대 격차 해소 품격 사회 민생 추진단, 약칭 AI 품격 민생단을 발족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메가 성장 특위와 함께 당의 양대 특별기구로서 성장과 공존을 병행하고 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특별히 우원식 전 국회의장께서 상임고문을 맡아서 실질적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은 용혜인 기본소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당 의원을 두고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동훈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불법 유출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정치검찰 종식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민생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물가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역대 최고 수준의 성수품 공급과 가격 할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을 시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추진 실적을 논의한다”며 “특히,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추가 재원까지 확보한 성수품 가격 할인 지원 사업에 작년 900억 원 배디 대폭 늘어난 1930억원이 투입된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OPENHOPE

올원모임통장

모인다는 건
함께 희망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
열어보세요!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는
희망 가득 NH올원모임통장



희망을 키워주는
최대 2.5% 금리
[*연/세전, 일별 잔액 3백만 원까지 적용]



응원은 조건 없이
금융 수수료 면제
[*전자금융 수수료 및 CD/ATM 현금 인출 수수료]



손쉽게 함께하는
모임원 간편 초대



모임 관리를 편하게
회비 납부 현황판

[NH올원모임통장 유의사항] ■ 가입대상: 개인 ■ 가입방법: 영업점, 비대면(NH농협뱅크) ■ 기본이자율: 0.1%(26.04.07. 기준, 연/세전) ■ 우대이자율: 최고 2.4%(기본이자율 포함 시 최고 2.5% 연/세전, 일별 잔액 3백만 원까지 적용) ① NH올원모임서비스에 모임개좌 등록 및 해당 모임에 모임원 2명 이상 유지: 1.9%p ② ①번 조건 충족 및 결산일이 포함된 월의 전월·전전월 2개월 간 해당 계좌에 2건 이상 입금 건이 있는 경우: 0.5%p ■ 이자 지급 시기: 매월의 이자를 계산하여 3.6.9.12월 넷째 토요일에 계산 후 다음날 지급 ■ 우대서비스: 전자금융 수수료(인터넷/스마트뱅킹) 및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NH농협은행 CD/ATM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 E행 CD/ATM 현금 인출 수수료 월 5회 면제 (농·축협 기기 제외) * 가입기간 동안 이 통장으로 거래 시 매월 조건 없이 제공 ■ 유의사항: 이 상품을 NH올원모임서비스 모임통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예금주(모임주) 본인 명의 계좌이므로 발생한 이자소득 및 의무사항은 모임주에게 귀속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 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계좌에 입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출금 및 이체 등 잔액변동이 불가합니다. ■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이벤트 및 상품내용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61-3000)로 문의 바랍니다. ■ 은행연합회 심의필 제 2026-06139호 (2026.04.17.~2027.04.16.)

美·日 기준금리 인상 전망… 한은 ‘금리차 샌드위치’ 시험대

한은, 조건부 금리전망 ‘인상’ 무게
원화 강세시 인상압력 줄어든 듯
美 추가 긴축, 유가·환율 오르면
수입물가 거쳐 금리 인상 가능성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 주 나란히 정책금리를 0.25%포인트(p) 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현재 미 기준금리는 연 3.50~3.75%, 한국은 3.00%, 일본은 1.00%다. 인상이 현실화하면 한·미 기준금리차는 1.00%p(상단 기준)로 벌어지고 한·일 금리차는 1.75%p로 좁혀진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한국시간으로 17일 새벽 금리 결정 결과를 발표한다. 일본은행은 17~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한다.

◆ 美 물가 월간 재가속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보다 0.4%, 전년 동월보다 3.4% 올랐다. 휘발유 가격이 한 달 사이 3.9% 뛰며 전체 월간 상승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



신현승 한국은행 총재.

/뉴시스

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 대비 2.4% 상승해 7월 2.5%보다 둔화했다. 하지만 전월 대비로는 상승률이 0.2%에서 0.3%로 높아졌다. 연간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단기 물가 압력은 다시 강해진 것.

CPI 발표 직후 금리전문시장에 반영된 연준의 0.25%p 인상 확률은 72%에서 86%까지 상승했다. 연준은 지난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전체 위원 가운데 3명은 0.25%p 인상을 주장했다.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2023년 7월 이후 첫 인상이 된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결정과 함께 공개되는 경제전망과 점도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쏠린다. 에너지발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공급 충격으로 볼지, 추가 긴축이 필요한 기조적 압력으로 판단할지가 향후 금리 경로를 가를 전망이다.

일본은행도 기준금리를 1.25%로 높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마스 고이치 일본은행 심의위원은 최근 일본의 명목 중립금

리를 1.1~2.5%로 추정하면서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목표인 2%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원화 약세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일 금리 차 축소는 원화 자산의 상대적 금리 매력을 낮추지만, 엔화가 강해지면 아시아 통화 전반의 약세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 한국 수출품의 일본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원화에 미칠 영향은 연준 인상보다 복잡적이다.

◆ 10월 금통위, 관건은 환율·유가

지난 11일 원·달러 환율은 1340원대에서 거래됐다. 7월 초 장중 1560원 선에 근접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달여 만에 200원 넘게 낮아졌다. 한은도 지난 8월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완화와 미 달러화 약세, 외환 수급 개선 등을 원화 강세의 배경으로 꼽았다. 한·미 금리 차만으로 최근 환율 흐름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 역시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상해 3.00%까지 끌어 올렸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3.3%,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7%, 근원물

가 상승률을 2.5%로 전망한 데다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도 금융안정 부담으로 남아 있다.

지난 8월 공개된 6개월 후 조건부 금리 전망에서는 총 21개 점 가운데 3.00%에 5개, 3.25%에 10개, 3.50%에 6개가 놓였다. 이는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이 각자의 경제 전망과 불확실성의 확률 분포를 반영해 3개씩 제시한 결과다. 각각의 점을 독립된 인상의 의견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전체 분포가 현 수준보다 높은 금리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음 금통위는 오는 10월 22일 열린다.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 대외 부문의 인상 압력은 줄어든다. 반대로 연준이 추가 긴축 신호를 내놓고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르면 수입물가를 거쳐 3.25% 인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한은은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정기예금 금리 3%대 인상… 은행권 ‘수신 경쟁’ 재점화

하나·우리·신한, 금리 잇달아 인상
NH농협은행, 1년만기 3.45% ‘최고’
지난달 은행 정기예금 20.3조 증가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주요 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 중반까지 올라온 가운데, 고객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권의 수신 경쟁도 다시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정기예금 상품인 ‘NH 올원e예금’의 금리를 가입 기간별로 0.2~0.3%포인트(p) 인상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2년 미만 상품 금리는 0.2%p, 2년 이상 3년 미만 상품 금리는 0.3%p 각각 올랐다. 1년 만기 금리는 기존 연 3.25%에서 연 3.45%로 높아졌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도 최근 정기예금 금리를 잇달아 인상했다.



Chat GPT가 생성한 주요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인상 이미지.

하나은행은 지난 10일부터 ‘하나의 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를 기존 연 3.2%에서 연 3.3%로 0.1%p 올렸다. 지난 7월 연 2.9%에서 연 3.2%로 인상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추가 인상에 나선 것이다.

우리은행은 ‘WON플러스예금’ 1년 만기 금리를 연 3.2%에서 연 3.4%로 0.2%p 인상했다. 2년 만기 금리도 기존 연 2.5%에서 연 3.0%로 0.5%p 올렸다.

신한은행도 지난 9일 ‘쏠리한 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를 기존 연 3.2%에서

연 3.4%로 0.2%p 인상했다.

5대 은행 가운데 1년 만기 기준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NH농협은행으로 연 3.45%다. 나머지 은행들도 연 3.2~3.4%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면서 5대 은행 모두 3%대 정기예금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수신상품에 대한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코드K 정기예금’에 연 3.61%,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각각 연 3.60%를 제시하고 있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앞세운 인터넷은행과의 경쟁이 이어지면서 주요 은행들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예금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으로 유입되는 정기예금 자금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국내 은행의 정기예금은 20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에도 42조3000억원 늘어나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

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주식 등 위험자산에 머물던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역머니무브’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정기예금 증가에는 금리 상승뿐 아니라 기존 예금의 만기 도래와 재예치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금 이동 흐름을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까지 높은 수신금리를 제시하고 있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은행권의 금리 경쟁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 중후반까지 추가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유리 기자 yul115@

추석연휴 대출 만기시 상환일 28일 자동연장

금융당국·금융권, 불편 최소화 방안

금융당국과 전(全) 금융권이 오는 24~27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 금융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자금난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및 취약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도 추진한다.

먼저, 각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9월 24일~9월 27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를 9월 28일로 자동 연장한다. 보험료와 공과금, 통신료 등도 납부일이 28일로 늦춰진다. 주택연금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연휴 기간 내에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지급일을 23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또한 모든 금융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을 포함해 9월 28일에 환급한다.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9월 23일에도 조기 지급이 가능하다.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ETF 포함)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에 해당하면 연휴 직후(오는 28일~30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단,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일부 채권·금·배출권 등은 23일에 매도한 경우에 한해 거래대금의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국내 12개 은행은 추석 연휴 기간 간접한 금융거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도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따른 금리우대 대출도 공급된다. 은행권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한 총 79조6000억원(신규 32조2000억원·만기연장 47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이번주 10개 단지서 1만1521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의정부 녹양동 ‘의정부우정지구A2’ 등

아파트 분양 성수기를 맞아 1만 가구 이상이 쏟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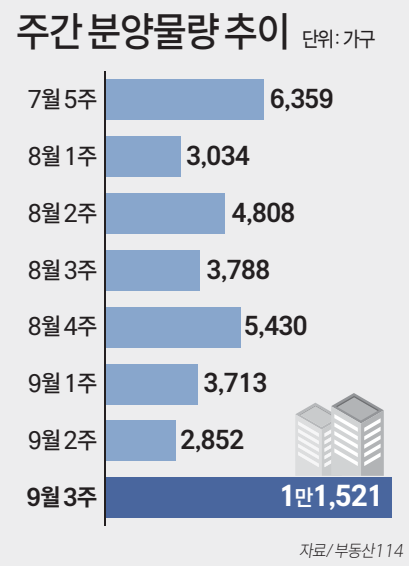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셋째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1만152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만490가구다.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우정지구A2(공공분양, 본청약)’, 충남 천안시 부대동 ‘천안아이파크시티3·4단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천안아이파크시티3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7개동, 전용면적 84~116㎡, 총 896가구 규모다. 4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8개동, 총 818가구 규모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부성역(2029년 목표)이 개통하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해지며, 천안IC를 통한 차량 이동도 편리하다. 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 등이 가까워 직주 근접 여건도 갖췄다. 단지 바로 옆으로 천안성성3조(2028년 예정)가 신설 예정이며, 성성지구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

‘의정부우정지구A2’는 19~20층 6개동, 전용면적 59㎡, 총 463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사전청약 당첨자 등 289가구를 제외한 174가구 이번엔 공급된다. 본청약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기본형 기준 3억 8207만원~4억 4191만원이다. 의정부시 거주자는 지역 우선공급 100%가 적용돼 당

/안상미 기자 smahn1@

삼성초기업노조, 조합원 지속 이탈 재정 논란·사법 리스크 ‘침침산중’

최근 조합원 5만 3000명대 파악
사실상 DS부문 중심 재편 분석
내부감사 등 지도부 갈등 고조

삼성전자청사 첫 과반노조였던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지지부(초기업노조)가 과반 지위를 잃은 데 이어 각종 논란까지 겹치며 교섭력도 약화되고 있다. 최승호 위원장의 사법·재정 문제에 지도부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전자 최대 노조로서의 입지도 흔들리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최근 5만3000명대로, 4월 말 7만 6000명대에서 2만명 이상 줄었다. 지난 3월 말 삼성전자 과반노조로 인정받았지만 조합원 이탈이 이어지면서 석 달 만인 6월 과반 지위를 잃었다.

조합원 이탈에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과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이해관계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성과급 재원을 둘러싼 이견이 커지면서 DX부문 조합원 상당수가 초기업노조를 떠나 동행노조로 이동했다. 지난 4월 2000명 수준이던 동행노조 조합원은 최근 3만명 안팎까지 늘었다.

초기업노조도 사실상 DS부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현재 조합원의 99%가 DS부문 소속으로, 노조는 오는 10월 초 총회에서 가입 자격을 DS부문으로 한정하는 규약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DS와 DX의 인사·재무·회계 체계와 재원이 분리돼 있어 양측의 요구를 함께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최 위원장을 둘러싼 재정 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지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지난 5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제도 불거졌다. 초기업노조가 참여한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3월부터 최 위원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집회용 조끼 등 약 3억7000만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 가격과 품질, 납기 등을 검토하고 공동투쟁본부 집행부의 동의도 거쳤으며 특별히 의혹을 부인했다. 본인이나 가족이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는 설명이지만, 전산노와 동행노조 측은 해당 업체와 최 위원장의 관계를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조합원 복지를 위해 구매한 회원권의 계약금액과 회계장부에 기재된 자산 취득액이 다르다는 지적으로 최 위원장 측은 분할 납부 과정에서 생긴 차이라며 회계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달 상반기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했지만, 두 사안에 대

한 감사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위원장은 이 부위원장에게 “위원장 권한으로 근로 면제 빠드릴 테니 광주로 가서 대응하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시간 면제를 해제해 노조 전임에서 빠고 현업으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로, 내부 감사를 예고한 간부를 노조 활동에서 배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이 부위원장에게 조합 속소와 처량 반납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를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근거는 없다.

초기업노조 규약상 내부감사는 부위원장의 임무인 반면, 임원인 부위원장을 해임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근로시간면제 역시 노동조합법과 노조 규약에 위원장이 단독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초기업노조는 오는 16일부터 감사를 예고한 이 부위원장과 이원일 광주지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표결할 예정이다.

사법 리스크도 남아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전후 삼성전자 임직원 약 10만명의 개인정보와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9일 노조 공지를 통해 “노조 간의 갈등이 계속 커져 힘든 점도 많은 게 사실”이라며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DS부문 노동조합으로 규약 변경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가스텍 2026에 참가한 HD현대의 부스 조감도.

/HD현대

K-조선, 3탱크 LNG선·FDC 모델 등 선포

〈부유식 데이터센터〉

가스텍 2026

HD현대 기술 인증 등 30건 행사
한화오션 데이터센터 솔루션 제시

HD현대와 한화오션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에너지 전시회 중 하나인 가스텍(Gas tech) 2026'에 참가해 차세대 조선·해양 기술을 선보인다.

1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조선·에너지 계열사 5곳이 공동 참가해 차세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제기화 설비(FSRU),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등을 선보인다. 전시 기간 글로벌 선급의 기술 인증과 주요 기업과의 업무협약(MOU) 등 총 30건의 공식 행사를 진행한다.

로이드선급(LR)으로부터 선수 거주 구·풍력보조추진장치를 적용한 미래형 LNG운반선의 설계 적합성을 인정받는 다. CE타입 액화가스 저장탱크와 3만5000㎥급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18만5000

㎥급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시스템은 기본인증을 받으며, LNG운반선 기관 운항 최적화 인공지능(AI) 솔루션 인증과 암모니아 추진선 안전성 평가용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인증도 추진한다.

3탱크 LNG운반선 기술도 소개한다. HD현대는 GTT·DNV와 화물창을 기존 4개에서 3개로 줄인 BW LNG의 17만 7000㎥급 LNG운반선을 건조 중이다.

한화오션은 자체 개발한 60MW급 부유식 데이터센터(FDC)실물 모델을 처음 공개한다. 모듈화 설계를 적용해 환경과 고객 요구에 따라 발전·전력 공급 방식과 서버 유형, 용량을 구성할 수 있다.

한화오션은 조선·해양 기술에 한화그룹의 데이터센터·에너지·운영유지보수(O&M)·보안 역량을 결합해 사업을 추진한다.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 부사장은 “조선·해양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한화그룹의 에너지·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육상 데이터센터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한화에어로, ‘천무’ 유럽시장 첫 독자수출

크로아티아서 6400억 규모 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로켓(MLRS) ‘천무’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K9 지주포 도입 이력이 없는 국가에 수출됐다. 그간 K9의 후속 패키지 품목 성격이 강했던 천무가 기존 고객망을 벗어나 독자수출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크로아티아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4억1000만유로(약 6400억원) 규모의 천무 18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크로아티아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에 이어 유럽 네 번째 천무 도입국이다. 노르웨이는 지난 2017년 K9 52문과 K10 14대를 계약한 뒤 지난 2월 천무 16대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운용으로 쌓은 성능과 군수지원 신뢰가 천무 선정의 주요 참고자료가 됐다고 설명했다. 에스토니아 역시 2018년 K9 12문 계약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약 2억 9000만유로 규모의 천무 6대 및 미사일 3종 도입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 5월 3대를 추가 발주했다. 폴란드는 2014년 K9 차체 수출과 2022년 8월 K9 완성형 212문 계약에 이어 같은 해 10월 천무 288대 기본계약 체결했다. 다만 중동에서는 이미 K9 선행 도입 없이 천무가 수출된 바 있다.

독자 수출 확대 배경에는 유럽의 장기 정밀화력 수요 증가가 있다. NATO는 지난해 ‘역량목표’에서 장거리 무기 강화를 우선과제로 제시했고, 지난 7월 유럽 6개국은 ‘지상 기반 정밀타격 능력’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서방 방산업체의 생산능력 한계와 지난



천무 다연장로켓.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2년 이후 한국산 무기에 대한 국제 방산시장의 재평가도 천무의 존재감을 키운 배경이다. 크로아티아 국방부는 천무 선택 이유로 단·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운용 유연성뿐 아니라 24~36개월 내 인도 가능한 납기, 가격 경쟁력과 가용성을 꼽았다.

유럽 각국의 운용환경에 맞춘 체계통합도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크로아티아 사업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대와 로켓탄을, 폴란드 WB그룹은 지휘통제시스템 공급·통합을 맡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서 폴란드형 ‘호마르-K’에 WB그룹의 TOPAZ 지휘·사격통제체계를 통합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월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K9 미도입국도 천무의 잠재시장으로 보고 있다며 동유럽·북유럽·중동 등을 주요 예상 지역으로 제시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기존 유럽 방산국의 생산능력 한계로 대량 생산과 신속 공급이 가능한 한국 방산업체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며 “천무는 성능과 가격, 공급능력을 인정받으며 K9에 기대지 않는 독자 수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LG전자, 美 에미상 ‘TV·가전 파트너’ 참여

LG 시그니처 인플루언서 라운지 마련
제품 체험·현장 콘텐츠 제작 등 활동

LG전자가 미국 방송계에서 최고 권위로 인정받는 에미상(The Emmy Award)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프리미엄 브랜드 알리기에 나선다.

LG전자는 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파크 시어터에서 열리는 제78회 에미상 시상식에 공식 TV·가전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LG전자는 미국 텔레비전예술과학아카데미와 이어온 협력을 바탕으로 기존 프리미엄 TV 중심의 파트너십을 생활가전까지 확대했다. 올레드 TV와 함께 프

리미엄 가전 브랜드 ‘LG 시그니처’를 선보일 계획이다.

에미상은 미국 TV·방송 업계의 우수 작품과 배우, 제작진 등을 선정하는 시상식으로 1949년 시작돼 올해 78회를 맞았다. LG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식 파트너로 참여해 제품 체험과 현장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시상식이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파크 시어터 인근에는 ‘LG 시그니처 인플루언서 라운지’를 마련한다. 이곳에는 ‘LG 올레드 에보 AI’를 비롯한 프리미엄 TV와 ‘LG 시그니처 에센스 화이트 냉장고’, ‘LG 시그니처 스타일러’ 등이 전시된다.

배우와 크리에이터 등 시상식 참석자

들의 모습도 제품과 함께 현장 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이다. 에미상 시즌에 맞춘 콘텐츠 접근성도 강화한다. LG전자는 독자 스마트 TV 플랫폼 ‘webOS’와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LG채널’에 에미상 전용 배너를 마련한다.

LG전자 북미지역대표 박도영 부사장은 “78회를 맞은 이번 에미상 시즌에도 텔레비전예술과학아카데미와 파트너십을 이어가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독보적인 화질의 올레드 TV 기술과 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를 통해 전 세계 고객들에게 일상 생활 속에서 품격 있는 공간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D, 실무자 중심 AI 활용 체계 고도화

‘AX 스위트’ 누적과제 450건 달해

LG디스플레이가 현업 실무자 중심의 인공지능(AI) 활용 체계를 구축하며 전사 인공지능 전환(AX)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각 사업부 실무자가 직접 AI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개

발하는 전사 프로젝트 ‘AX스쿼드(SQUAD)’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X스쿼드는 실무자가 실제 업무 과정에서 겪는 문제나 반복 업무를 AI 과제로 구체화하고, AI 도구를 활용해 개선 방안을 직접 구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AX스쿼드에 참여하고 있으며 누적 과제는 450여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제조 분야의 불량 분류 간편화 프로그램, 개발 분야의 광학 시뮬레이션 도구, 인사 분야의 구성원 설문 시스템 등 약 190건이 자동화됐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AX스쿼드는 단순한 AI 사용자 역할에 머물던 임직원들이 과제 수립부터 실행까지 직접 참여하는 전사적 AI 혁신 추진 체계”라며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업무 혁신과 AI 내재화를 통해 기술 중심 회사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에이스·시몬스 이어 쉘리까지… 여주·이천 ‘침대 메카’ 우뚝

생산·R&D·물류 거점 한곳에
자동화·수작업 생산방식 다양

에이스, 여주공장 연 13만조 생산
시몬스, 이천공장 하루 최대 1000조
쉘리, 아시아 최대 여주공장 가동

경기 여주·이천지역이 브랜드 침대 생산의 메카로 완벽하게 거듭나고 있다.

침대업계 선두그룹인 에이스침대, 시몬스가 이들 지역에 일찌감치 터를 잡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외국계인 쉘리침대까지 대규모 공장을 완공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3일 침대업계와 관련 기업들에 따르면 에이스침대는 1990년부터 침대를 생산했던 아트레 여주공장(가남면 상활리)을 2003년에 인수·합병하면서 1995년부터 가동했던 충북 음성공장과 함께 2곳에서 침대를 제조하고 있다. 메인인 음성공장과 서브인 여주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침대는 연간 총 43만대 규모에 이른다.

에이스침대 여주공장은 9만419㎡(약 2만7000평)로 하루 450조, 연간 기준 약 13만조의 침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면적만 10만평(30만53㎡)에 가까운 음성공장은 하루 약 1000조, 연간 30만조 가량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음성공장은 국내에서 처음이자 세계에선 두번째로 전자동 무인생산시스템을 구축, 국내 침대 제조 자동화를 이끌고 있다. 음성공장의 자동화율은 70%가 넘는다.

이에 더해 에이스침대는 여주·음성공장에 총 594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



경기 여주 가남면에 위치한 에이스침대 여주공장 전경.



경기 이천 모가면에 있는 시몬스의 생산 공장 ‘시몬스 팩토리움’



쉘리침대가 경기 여주 오금동에 최근 완공한 신공장 전경.

비와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을 업계 처음으로 구축, 연간 약 7.62G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며 친환경 스마트 생산기지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두 공장에 구축한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을 통해 연간 약 15억원의 전기요금 절감과 3617톤 규모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음성공장은 매트리스 생산과 침대공학연구소를 아우르는 핵심 생산·연구 거점 역할을, 여주공장은 효율적인 제조 인프라를 기반으로 생산 물량을 분담하는 역할을 각각하며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몬스는 이천 모가면의 5만9647㎡(약 1만8000평) 공간에 1500억원 가량을 들여 수면 연구 R&D센터와 생산시스템 등을 두루 갖춘 공장 ‘시몬스 팩토리움’을 짓고

2017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시몬스 팩토리움의 핵심인 수면 연구 R&D센터에선 44종의 시험기기로 187개의 테스트를 통해 원자재 준비부터 제품 최종 검수까지 절차를 거치고 있다.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시몬스 김동현 이사는 “팩토리움 생산동은 9m의 층고를 확보해 공기 흐름이 원활하도록 설계했다. 공조시스템을 통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먼지와 오염 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매트리스 생산 과정에선 별도의 오펜수가 발생하지 않는 제조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작업자의 청결과 안전 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몬스 팩토리움은 하루 최대 1000조 이상의 매트리스 생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품질 유지를 위해 일일 생산량을 600~

700조로 유지하고 있다.

팩토리움 한쪽에 위치한 물류동은 최대 1만5000조의 매트리스를 쌓아둘 수 있다. 시몬스는 2018년부터 업계에서 유일하게 생산, 보관, 출고, 배송 등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자체 작배송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평일 기준으로 고객이 구매 후 사흘 이내에 제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면서 ‘가구 배송은 느리다’는 선입견을 깼다.

에이스침대를 이끌고 있는 안성호 대표, 시몬스의 안성호 대표는 ‘침대 대부’로 불리는 고 안우수 에이스침대 창업주의 아들이다. 형과 동생이 나란히 이웃 동네에서 제품을 생산하며 브랜드 침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쉘리침대가 여주 오금동에 1만5183㎡(약 4600평) 규모의

공장을 새로 구축하고 가동을 시작했다.

이는 아시아권에 있는 쉘리의 매트리스 생산기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구매동, 생산동, 물류동, 쇼룸으로 이뤄진 쉘리침대 여주공장의 하루 최대 생산량은 약 500조 정도다.

쉘리침대 관계자는 “모든 생산 공정은 전 세계 공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글로벌 매뉴얼(General Specifications Manual, GSM)을 기준으로 운영한다”면서 “쉘리침대는 자동화 설비에 의존하기보다 숙련된 인력의 수작업을 바탕으로 주문 후 제작·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를 고수하며 현재 110여 종의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쉘리코리아는 1998년 한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기아, ‘PV7’ 공개… 유럽 전기 상용차 공략

PV5 유럽 전기밴 1위 발판
PV7 세계 첫 공개·내년 출시
PBV 라인업 넓혀 현지 공략 강화

전 세계 주요 상용차와 물류 솔루션 등 미래 상용차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상용 모빌리티 전시회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6’이 개막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내에서는 기아가 대형 전용 전기 목적기반모빌리티(PBV) ‘PV7’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유럽 전동화 상용차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6’은 14일부터 20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다. 14일은 언론 공개 행사로 운영되며 일반 관람은 15일부터 시작된다.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이번 전시회에 참석한 기아는 1531㎡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해 PV7 3대와 PV5 7대를 전시하고, 차량 크기와 용도별로 확정되는 PBV 전략을 선보인다.

기아는 PV7을 PV5에 이은 두 번째 전용 전기 PBV로 선보인다. (PV7은) PBV 전용 전동화 플랫폼 ‘E-GMP.S’를 기반으로 하며 PV5보다 큰 차체와 넓은 공간을 갖춰 물류와 여객, 레저 등 다양한 수요를 겨냥한다. 유럽 출시는 내년으로 예정돼 있다.

기아가 PV7의 첫 공개 무대로 유럽을 선택한 것은 현지 전기 상용차 시장 공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4 사진.

/IAA Transportation

략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데이터포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 전기 경사용차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반면 전체 경사용차 시장은 8.7% 감소했다.

특히 PV5는 올해 상반기 유럽 C세그먼트 전기 밴 시장에서 점유율 30.4%로 1위를 차지했다. 기아는 PV5의 시장 안착을 바탕으로 PV7까지 라인업을 확대해 유럽 PBV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계획이다.

글로벌 상용차 업체들도 장거리 친환경 운송 기술을 전면에 내세운다. 볼보트럭은 최대 700km를 주행하는 ‘FH Aero Electric’을, 르노트럭은 최대 660km 주행이 가능한 ‘E-Tech T780’을 선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 트럭은 1회 수소 충전으로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NextGen H2 Truck’을 전시한다.

다만 유럽 상용차 시장은 여전히 디젤 중심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U 신규 트럭의 92.1%가 디젤이었고, 충전식 전기트럭 비중은 4.8%에 그쳤다.

완성차 업체들은 강화되는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해 전기·수소 상용차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EU는 대형 상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2030년 45%, 2035년 65%, 2040년 9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도 주요 의제다. 중국 스카이워스모토는 레벨4 자율주행에 대응하도록 설계한 대형 전기트럭 ‘Z9’을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상용차 경쟁은 단순 주행거리보다 충전 시간과 적재량, 차량 가격, 에너지 비용을 포함한 실제 운송 경제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전기과 수소, 고효율 내연기관이 운송 환경에 따라 당분간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

재창업자 ‘재도전 힐링캠프’ 운영

중진공, 폐업 이력 재창업자 30명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실패 경험을 딛고 재도전에 나선 재창업자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재도전 힐링캠프’ 참여자를 14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13일 중진공에 따르면 힐링캠프는 이달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이천 소재 동원리더스아카데미에서 진행하며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 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올해 중진공은 ‘재도전응원본부’를 중심으로 민간·유관기관과 협력해 ▲강원·충청 권역별 전문가 집단멘토링 ▲재창업

특화교육·컨설팅 ▲현장 간담회 등 재창업기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재창업자가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기 위해선 사업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덜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내적 지원도 필요하다. 이에 이번 힐링캠프는 재창업자의 심리 회복과 회복 탄력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의 심리상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생곡선 그리기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항기 테라피 등을 비롯해, 실패 경험과 재창업 과정을 공유하는 ▲재도전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됐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상생협력 유공·포상 후보 모집

성과공유·상생결제 등 3개 분야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2026년 상생협력 촉진제도 유공·포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포상의 공모 분야는 ▲성과공유제 확산 ▲상생결제 확산 ▲사업영역보호 등 총 3개이며 중기부 장관 표창 총 32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먼저 ‘성과공유제 확산’ 분야에서는 위탁·수탁기업 간 혁신적인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업·노력해 발생한 성과를 효과적으로 공유한 기업을 공모한다.

성과공유 과제 이행을 확인받은 위탁·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우수 성과공유 과제 3건을 선정해 총 6점의 표창을 수여한다.

‘상생결제 확산’ 분야에선 상생결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활용하거나 2차 이하 하위 거래단계로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지급을 확산하는 등 상생결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총 20점의 표창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발표한 ‘상생결제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로, 일반 상생결제와 구분해 유통 분야 상생결제를 별도로 포상한다.

/김승호 기자



풀스택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이음 인사이드’로 6000만명 연결… AI 생태계 대연합

KT, ‘모두의 AI’ 사업전략

토종 AI 전문… 실생활 점점 연결
제휴사 플랫폼과 AI 에이전트 연결
최적 경로 찾는 ‘동적 라우팅’ 채택
개인정보보호·전담보안 TF 구성도

KT가 생활 밀착형 플랫폼에 토종 인공지능(AI) 모델을 심는 ‘이음 인사이드’ 생태계를 본격 가동한다.

KT는 지난 11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대국민 AI 서비스 청사진을 담은 ‘모두의 AI’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을 진행한 KT 이진형 AX사업본부장(상무)은 “국내 이용 빈도 상위 5대 서비스 중 토종 AI가 전문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진짜 필요로 하는 실생활 접점에 AI를 스며들게 하겠다”고 사업의 취지를 밝혔다.

◆ 다음·직방서 곧바로 AI 호출… 개방형 생태계 구축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는 범용 AI 서비스를 공공·금융·쇼핑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KT가 구성한 컨소시엄은 다음, 업스테이지, 솔트룩스, 무신사, 직방, EB S 등 국내 대표 기업이 참여한다.



KT가 모두의 AI 핵심 전략으로 ‘이음 인사이드’를 제시했다.

/KT

KT 컨소시엄은 ‘AI라는 세상을 모두에게’란 슬로건을 내걸고 디지털 사각지대 없이 전 국민이 누구나 실생활 AI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숙련자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빠짐없이 하나로 있다는 의미를 담아 프로젝트명을 ‘이음’으로 정했다. 여기서 시작한 핵심 전략이 ‘이음 인사이드’다.

이음 인사이드는 개발 키트(SDK) 형태로 작동해 제휴사 플랫폼 내에서 KT의 AI 에이전트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양방향 생태계를 지향한다. 제휴사 앱과 KT

의 이음 에이전트가 연결돼 이용자들이 직방 등 플랫폼에서 AI 검색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제휴사가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다음 포털의 4800만 고객 계정과 검색 데이터를 연계한다. 또한 다음 포털에서는 구글의 ‘AI 모드’와 같이 AI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KT 컨소시엄의 서비스 접점은 월간활성사용자(MAU) 기준으로 약 6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 경험(UX)도 메모리 맵 기반의

초개인화를 구현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에 관심이 높은 중년 여성은 대화를 통해 관심사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필요한 키워드를 직접 넣어서 특징을 설정할 수 있다.

◆ 콜링엔업스테이지·장문은모티프… 토콘 팩토리로 운영 효율 ↑

방대한 영역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AI 운영 플랫폼 ‘KT 토콘 팩토리’도 가동된다. 국산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신경망처리장치(NPU) 등이 사용자 질문을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네트워크 경로를 찾아주는 ‘동적 라우팅’ 방식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규모 언어모델(LLM)에서 업스테이지 솔라는 도구를 호출하거나 핵심적인 판단을 하는데 쓰인다. 장문 입력 처리는 모티프테크놀로지사가 맡는다. 공공 행정은 솔트룩스의 루시아, 소셜 미디어에 배포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제작은 NC AI의 AI 모델로 만든다.

KT 이진형 AX사업본부장(상무)은 “향후 모두의 AI 적용을 위해 추가적인 강화 학습과 파인 튜닝, 경량화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하드웨어는 리벨리온 NPU 32장을 묶은 ‘NPU 박스’

를 최적화한다. KT는 리벨리온 NPU가 전력 효율이 뛰어난 점을 들어 성능 개선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버 먹통 원천 차단… 제휴 기업과는 ‘토콘 크레딧’ 정산

보안 대책과 트래픽 폭증에 대비한 안정장치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전담 보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주야간 운영 체계를 가동한다. 이용자가 몰려 서버가 과부하되면 KT 자체 GPU 클러스터로 자동 전환해 안정성을 유지하고, 야간 여유 시간 때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GPU를 지속적으로 학습해 고도화한다.

수익 모델 전환과 관련해서는 향후 정부 로드맵에 따라 프리미엄 서비스에 한해 과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코딩이 필요하거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PC 클라우드 기반의 프리미엄 에이전트를 출시해 유료화할 계획이다.

제휴사와는 사용자와 AI가 주고받는 토큰의 양 만큼을 정산하는 크레딧 연동 체계를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는 모두 무료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SKT, 경남도 4개군에 ‘찾아가는 서비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서 보이스피싱 체험 등 프로그램 제공

SK텔레콤이 지방자치단체와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에 나가기 위해 경상남도 4개군과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산청군청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신성범 지역구 국회의원과 유명현 산청군수, 이흥기 거창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이흥기 거창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SK텔레콤 측은 이해연 고객가치혁신실장과 김우람 대외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SK텔레콤은 올해 전국 74개 시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총 145회 운영했다. 올해는 약 1만3000명 고객을 직접 만나는 등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

회사 측은 이같은 개별 프로그램을 지자체 협력형 모델로 발전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이들 4개



(왼쪽부터)SK텔레콤 김우람 대외지원실장, 김윤철 합천군수, SK텔레콤 이해연 고객가치혁신실장, 신성범 국회의원, 유명현 산청군수, 이흥기 거창군수, 진병영 함양군수가 지난 11일 산청군청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SK텔레콤

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산청군(46.3%), 함양군(42.2%), 거창군(34.7%), 합천군(48.9%)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고령인구 비율(21.7%)의 1.6~2.3배 수준이다.

신성범 국회의원은 “고령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보이스피싱 등 금융 피해 사례가 많고 디지털 정보격차 역시 매우 크다”며 “직접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서비스’와 연계

해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SK텔레콤은 산청·함양·거창·합천군에서 각각 2회씩, 총 8회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맞게 강의 형태의 교육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체험 등 참여형, 실습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금융범죄 예방과 휴대폰 활용처럼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고, 평소 궁금했던 통신 서비스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민선 기자

KT, 미디어 단말용 칩셋 공급망 선점

애플과 공급체계 구축 ‘맞손’

KT가 글로벌 펌리스 반도체 기업과 손잡고 미디어 단말용 칩셋 공급망 선점에 나선다.

KT는 세계 최대 미디어 전시회 ‘IBC 2026’에서 애플과 단말 칩셋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본사를 둔 펌리스 반도체 기업이다. KT가 미디어 단말용 칩셋을 공급받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번 협력의 취지다.

이번 협약을 통해 TV 셋톱박스 등 미디어 단말에 쓰이는 칩셋을 조달하고 공급망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시스템 온 칩(SoC) 솔루션 공급과 단말의 인공지능(AI) 기능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도 병행한다.



지난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IBC 2026’에서 KT SCM실 AX·IT구매팀장 김재남 상무(왼쪽)와 애플 이명 중 미국 법인 CEO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KT

이번 전시회에서 ‘KT글로벌 상생 성장관’을 열고 국내 기업의 해외 판로도 지원한다. 참여 기업은 마르시스, 오성전자, 에너자이, 캐스티즈, 루나르트, 파일러, 스틸컷, 엑스엘에이트 AI 등 8곳이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코트라 암스테르담 무역관의 전문 인력도 투입된다.

/조민선 기자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 신작 공개

2030년 오픈 월드 슈팅게임으로 귀환 스타크래프트 2 이후 약 11년 만

블리자드가 대표 지식재산권(IP)인 ‘스타크래프트’ 신작을 오는 2030년 출시한다. 기존 실시간전략게임(RTS)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직접 전장에 뛰어드는 오픈 월드 슈팅게임으로 장르를 확장한다.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블리자드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팬 행사 ‘블리즈컨’에서 스타크래프트 신작을 공개

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스타크래프트의 대표 종족인 저그와 함께 병사의 시점에서 전장을 누비는 장면이 담겼다. 신작은 기존 시리즈의 테란·저그·프로토스 세계관을 계승하면서 게임 방식에는 변화를 준다.

스타크래프트는 1998년 첫 작품이 출시된 이후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블리자드를 대표하는 게임으로 자리 잡았다. 시리즈 신작 공개는 2015년 스타크래프트 2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공허의 유

산’ 이후 약 11년 만이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디아블로’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제작된다. 차기작 ‘디아블로5’도 공개했다. 2029년 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야마 디아블로가 이미 세계 ‘생츠퍼리’를 장악한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 신규 프로젝트도 공개됐다. 블리자드는 오는 11월 4일 ‘WoW 포에버’를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이용자들이 ‘클래식 플러스’로 불러온 프로젝트로, 2004년 출시 당시 게임 방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야기와 콘텐츠를 추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 통한 24시간 대응 체계 가동 본격화

LG유플러스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 피싱을 적극 방지하기 위해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통한 24시간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명절 기간에는 범죄 조직이 악성 앱을 유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택배 회사를 사칭하는 전화·문자 등을 통해 ‘추석 선물 택배를 받을 주소를 알려달라’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인증되지 않은 불법 투자 사이트나 비공식 거래 앱을 통한 투자를 유

도하면서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려는 새로운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이달 말까지 서울 마곡사옥에 전담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며 악성 앱 서버 추적·차단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악성 앱 감염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경찰 측의 차단 요청에도 즉각 대응한다.

키카오톡 알림톡 발송을 통해 악성 앱 제어 서버와 접촉하는 등 위험 상황도 알릴 예정이다. 고객은 가까운 경찰서나 LG유플러스 매장을 방문해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민선 기자

개미 107조 물어뒀는데… 증권사 예탁금 이자는 ‘0%대’

100만원 초과 이용료율 연 0.4~0.7%
“금리 상승분 반영해야” 투자자 불만
증권사 “운용수익·비용 고려해 조정”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묻힌돈을 물어두고 증시 주면을 맴돌고 있지만, 정작 증권사들이 투자자 자금에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율은 0%대에 머물고 있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증권사의 금리와 같은 개념으로, 증권사가 투자자 예탁금을 운용하고 지급하는 이자율을 의미하며 예탁금 이용료율이 인하될 경우 투자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증시 주변에 머무는 투자자예탁금이 107조6573억원(10일 기준) 상황에서 0%대에 머물고 있는 이용료율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증권사 배만 불리고 있다”, “금리 상승분을 반영하라”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10일 기준 107조6572억7600



기준금리가 연속 인상된 가운데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은 실제 자금이 몰리는 고액 구간에서 여전히 0%대에 머물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만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가 7000선을 밑돌았던 지난 4일 93조5499억8100만원까지 줄었지만, 이후 지수 반등과 함께 4거래일 만에 14조1072억9500만원 늘었다.

예탁금은 지난 7월 말 104조1354억원에서 8월 27일 96조7091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 2일 102조2672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증시 흐름에 따라 변동성을 보였다. 증시 조정기에 대기 자금이 실제 주식 매수에 투입되면서 감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최근 다시 100조원을 넘어선 만큼 시장에 머무는 자금 규모는 여전히 크다.

투자자예탁금은 주식 매수를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돈이나 주식을 판 뒤 아

직 인출하지 않은 자금이다. 증권사는 이를 한국증권금융 등에 예치·운용한 뒤 발생한 수익 일부를 이용료로 지급한다.

자기가본 상위 10개 증권사 가운데 1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용료율은 미래에셋증권이 연 2.25%로 가장 높다. 키움증권은 2.0%, 하나증권은 1.75%, 메리츠증권은 1.5%를 적용한다. 그러나 100만원을 넘으면 대부분 연 0.4~0.7%로 떨어진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0.7%, 하나증권은 0.65%, 미래에셋·키움·메리츠·KB·대신증권은 0.6%, NH투자증권은 0.4%다. 예탁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 1.05%를 적용하는 삼성증권이 사실상 유일한 예외다.

최근 인상도 소액 구간에 집중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달 100만원 이하 이용료율을 2.0%에서 2.25%로 높였지만 초과 구간은 0.6%로 유지했다. 반면 KB증권의 100만원 초과 이용료율은 기준금리가 현재와 같은 3%대였던 2024년 4분기 1.09%에서 현재 0.6%로 0.49%포인트 낮아

졌다.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말까지 군인연금 안심통장 이용료율과 CMA 우대수익률을 연 2.60%에서 2.75%로 높이는 사례도 있다. 다만 특정 수급권자에게만 적용되는 상품이어서 일반 투자자의 체감도는 제한적이다.

투자자들은 높은 이용료율이 소액 구간에만 적용되는 만큼 실제 예탁 규모에 맞는 금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투자자들은 높은 이용료율이 소액 구간에만 적용되는 만큼 실제 예탁 규모에 맞는 금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예탁금은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장기간 맡기는 자금과 성격이 다르고 이용료율도 기준금리와 바로 연동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한 만큼 운용수익과 관련 비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용료를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기, 실적 전망 뛰는데 주가는 뒷걸음

6월 고점 대비 주가 42% 하락
올해 영업익 시장예상치 1.9조
MLCC 수주 계약 3건, 총 1.8조

삼성전기의 주가가 실적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삼성전기의 주가는 3.98% 하락했다. 지난 6월 19일 기록한 장중 고가였던 241만7000원 대비로는 42.08% 떨어졌다. 증권가는 실적이 주가를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삼성전기의 2026년 영업이익 시장예상치(컨센서스)는 1조9468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1%, 3개월 전보다 22.5% 높아졌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대신증권은 삼성전기의 3분기 영업이익을 6363억원으로 추정했다. 기존 추정치인 6130억원과 시장 컨센서스 5960억원을 각각 웃도는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44.5%, 전 분기 대비로는 44.5% 증가했다. 매출액은 3조86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8%, 전 분기 대비 11.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AI 인프라 투자자가 이어질 경우 고부가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기

제품 중심의 믹스 개선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이퍼스케일러의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되고 빅테크의 자체 AI 칩 생산도 늘면서 FC-BGA와 MLCC 수요가 예상치를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2026년 영업이익을 2조110억원, 2027년은 3조3030억원, 2028년은 3조98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120.2%, 64.2%, 20.6% 증가하는 흐름이다.

목표주가도 오르고 있다. 이달 들어 다올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삼성전기에 대한 목표주가를 280만원으로 유지했으며, DB증권은 지난 7월 말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지 한 달 여 만에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증권가는 AI 부품인 FC BGA, MLCC

의 공급부족이 환율 부담을 상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FC-BGA는 AI 반도체 수요 증가와 제한적인 공급 여건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기 공급계약도 확대되고 있다. MLCC 역시 AI 서버와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평균판매가격(ASP)이 상승하고 있다.

삼성전기가 올해 공시한 MLCC 수주 계약은 3건으로 총 1조8213억원에 달한다. 계약 기간은 대부분 2027년부터 시작해 2027년 말까지 이어지며, 일부 계약은 2028년 말까지다.

조현지 DB증권 연구원은 “단순한 수급 불균형을 넘어 협상력 자체가 공급자에게 넘어온 구도가 갖는 의미가 큰 만큼 2027년 추정치의 추가 상향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판단했다.

/신하은 기자

한투증권, 글로벌 금융사와 협력 ‘맞손’

핀코·JP모건 등 CEO·임원 참석
상품 공급·공동투자 등 협업 확대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KIS 나잇 인 뉴욕 2026’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KIS 나잇은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고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한국투자증권은 2024년 뉴욕에서 행사를 처음 개최한 뒤 매년 이어오고 있으며, 홍콩으로도 무대를 확대했다.

올해 행사에는 핀코와 JP모건, 칼라일, 누버거, 맨그롭 등 글로벌 금융회사와 주요 투자기관의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행사에서 한국 금융시장과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소개하고 참석 기업들과 사업 확대 및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사장은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을 넘어 아시아 시장에서 견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며 “다양한 금융 역량을 보유한 파트너



왼쪽부터 조지 워커 누버거 회장 겸 최고경영자, 그레그 본드 맨그롭 최고투자책임자(CIO) 겸 미주지역 총괄,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제프 네델만 칼라일 공동사장. /한국투자증권

들과 협력해 국내외 투자자에게 차별화된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유가 100달러 돌파에 정유주 ‘질주’

정제마진·OSP 추가하락 효과 주목

중동에서 무력 충돌이 확대되면서 정유주들이 주목받고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있어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8월 10일~9월 11일) GS는 22.3%, SK이노베이션은 16.31%, S-Oil은 7.45%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9.69% 상승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정제마진을 밀어 올린 영향이 상승 배경이 됐다.

원유값과 제품값 차이인 정제마진이 커질수록 정유사의 수익성은 좋아진다. 이란 전쟁으로 정유설비가 물리적으로 파손돼 복구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시장에서는 마진의 상승폭보다 지속 기간에 주목한다. 정유·유통기류 비중이 높은 S-Oil의 수혜가 가장 크고, SK이노베이션도 비슷한 흐름을 탈 것이라는 시각이다.

전유진 iM증권 연구원은 “이제는 단순히 유가 변동에 일희일비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호시황과 높아진 이익 체력, 이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과 배당증가 여력 등의 모멘텀에 주목할 때”라고 짚었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을 넘어선 정제마진과 공식판매가격(OSP) 추가 하락 효과 등에 주목해야 한다”며 “2~3분기 S-Oil 복합정제마진은 배럴당 41\$를 웃돌고 있다. 미국 대표 정유사인

Valero 39\$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원은 이어 “특히 중동산 원유에 대한 아시아 정유사의 구매가 줄어드는 반면 산유국의 수출 경쟁이 커지고 있어 OSP의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목표주가도 뛰고 있다. 최근 2개월간 S-Oil은 5개의 증권사 가운데 4곳(미래에셋증권·유진투자증권·하나증권·유안타증권)이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최저 14만8000원에서 최고 22만원을 제시했으며, iM증권만 17만원을 유지했다. GS는 유진투자증권이 13만8000원으로 72.5%를 올려, 3사 중 가장 공격적인 상승이 이뤄졌다.

SK이노베이션은 유진투자증권이 목표주가를 17만1000원으로 올렸고, 하나증권(20만원)과 iM증권(19만원)은 기존의 목표주가를 유지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흡수합병에 따른 재무리스크가 추가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다만 지금의 강세가 계속될 지는 미지수다. 골드만삭스는 8일(현지시간) 중동 지역 선박 공격이 더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반대로 역내 원유 수출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면 유가가 80달러대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스콧 베스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전쟁이 끝나면 공급 증가로 유가가 40~50달러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

삼성증권, 카이스트와 신탁 기부 확대

신탁 활용 생전·유산기부 활성화

삼성증권은 카이스트(KAIST) 발전재단과 신탁을 활용한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부를 희망하는 기부자가 삼성증권의 기부신탁 상품인 ‘Give You Trust’ 및 유안대용신탁 유산기부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과 지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통한 기부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삼성증권 Give You Trust는 최초 신탁 가입 시 원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탁기간 동안 발생한 투자이익은 기부자에게 귀속되며 이후 신탁기간이 종료되면 가입 시 지정한 기부처로 신탁 원본이 전달되는 생전 기부신탁 상품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제주 성과 기반 전국서 ‘그린수소’ 실증… 탈탄소 가속

기후부-제주도, 오는 16일까지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공동 개최
9개국 106개 기관 대거 참여

제주에 3.3MW급 수전해 단지 성과
하루 약 200kg 청정수소 생산

정부가 제주에서 축적한 그린수소 생산 및 운영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주요 거점에 50~100MW급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청정수소 생태계를 대대적으로 확장해 향후 다가올 탈탄소 사회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2026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린수소 글로벌 선도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기후경제수소 제주,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다’를 주제로 열린다.

행사에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비롯해 독일, 덴마크, 태국 등 주요국 대사관과 국내외



제주시 구좌읍 행원 3.3MW 수전해 실증단지 전경

/기후부

기업, 대학 등 9개국 106개 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재생에너지 혁신과 그린수소 국제협력을 핵심 축으로 삼아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주요 세션으로는 ▲재생에너지 시대의 전력시장 혁신 및 실행전략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 및 시스템 통합 ▲생산-저장-수송-활용-안전에 관한 전주기 기술혁신 ▲청정수소 수요시장 확대와 지역 기반 실증사례 등이 마련된다. 아울러 카탈루냐 수소 생태계 국제협력 세션, EU-IURC 수소도시 협력 해커톤, 청소년·청

년 대상 그린수소 미래세대 아카데미 등 다채로운 학술 행사와 전시회, 현장 투어도 진행된다.

그간 기후부와 제주도는 청정수소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 실증 사업을 지속해 왔다. 2017년 상명 250kW급 수전해 실증(2017~2021년)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222억원(국비 135억원, 도비 17억원, 민간 7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행원풍력단지 내에 3.3MW급 수전해 단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행원 단지는 알칼라인(ALK, 1MW 2기)

과 고분자전해질막(PEM, 1.3MW) 방식의 수전해 시스템과 2MWh급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갖춘 국내 대표 청정수소 생산기지다. 2024년 9월 본격 가동 이후 하루 약 200kg(최대 600kg)의 청정수소를 생산해 도내 수소버스 17대와 수소 승용차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을 실제로 입증한 독보적인 실증 사례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이같은 행원 단지의 실증 경험을 발판 삼아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50~100MW급 대규모 그린수소 생

산 실증사업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포럼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행원 실증단지 현장에서 기후부와 수소 전문가 및 연구자들이 참석하는 ‘수전해 기술 성과 공유회’를 열고, 그간의 구축·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대규모 실증사업의 발전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청정수소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탄소저감을 위한 기초원료이자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청정에너지원으로, 향후 도래할 탈탄소 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라며 “제주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이를 수소차 등에 연계·활용하며 청정수소 생태계 구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전해 실증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연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제주 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해진공, 폴란드서 유럽 물류 인프라 확보 박차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지원 설명회
브로츠와프 캠퍼스 II 준공식 참여
삼성SRA·캡스톤운용 등도 가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 기업의 해외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 유럽연합(EU)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유럽 내 물류 인프라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및 공동투자 기회를 최대한 늘려 간다는 계획이다.

해진공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일(현지시간) 폴란드 자메크토파치호텔에서 물류·항만·공급망 분야 기업과 투자자,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국내 기업들의 입주가 예정된 현지 물류센터(‘브로츠와프 캠퍼스 II’)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확대에 발



안병길 해양진흥공사 사장(가운데)이 7일(현지시간)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열린 물류센터 준공식에 참석했 있다.

/해진공

맞춘 행보다. 현지 물류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 물류거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및 공동투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폴란드는 최근 국내 제조·물류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고 유럽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

받는 시장이다.

설명회에서는 해진공의 주요 사업과 지원 제도를 비롯해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 운용 현황과 유럽 물류 부동산 시장 전망, 폴란드 주요 권역별 물류 부동산 투자·개발 사례 등이 소개됐다.

삼성SRA자산운용과 캡스톤자산운용은 각사가 운용 중인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와 주요 투자자산을 소개했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기업인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는 유럽 물류 부동산 시장의 최근 동향 및 전망 등을 발표했다. 이어 GS건설은 폴란드 주요 권역별 부동산 투자·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해진공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유럽 현지의 물류 시장과 투자 환경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사업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물류거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공유했다. 또 참석 기업 및 투자자들과 국내 기업의 유럽 진출과 연계 가능한 금융 지원, 공동 투자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요 물류거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과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유럽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우량 물류 자산을 적극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물류 인프라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해진공은 7일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열린 ‘캠퍼스(Campus) II’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캠퍼스 II는 해진공이 조성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를 통해 삼성SRA자산운용이 투자를 추진 중인 자산이다. 국내 다수의 기업이 임차하고 있는 현지 물류센터다.

공사는 매년 주요 해외 지역에서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베트남을 찾은 데 이어 올해 6월 미국, 9월에는 폴란드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기대-국방전직교육원’ 병합 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일환
전역 예정 군인에 보다 효과적인
직업훈련·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기술교육대와 국방부 산하의 국방전직교육원이 합체된다. 이는 정부가 이달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이다. 국방전직교육원의 기능이 한기대로 흡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역예정 군인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 통합 방안이다.

국책대인 한국기술교육대는 실전공학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4년제 대학으로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고용직업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고용서비스·정책개발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다. 또 민간 훈련

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심사평가, 온라인 평생직업능력개발 플랫폼인 ‘STEP’ 운영, 직업훈련 교사·강사 양성 등 직업훈련에 대한 전문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국방전직교육원은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매년 약 2만 9000명의 장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복무기간별 맞춤형 교육 및 군 경력과 연계한 취업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정 종류가 제한적이고 단기과정(3~4일) 위주로 운영되는 등 일부 한계도 있었다.

이번 통합으로, 고용노동부·한기대가 보유한 온·오프라인 직업훈련과 연계한 종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

역예정 군인들은 그간 국방전직교육원이 제공해 온 기본교육(3~4일 단기과정) 외에도 한기대가 보유한 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STEP),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약 3만 개의 전문 직업훈련 과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취업지원 서비스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역예정군인들이 교육·훈련을 전후해 고용노동부 고용24(워크넷)를 통한 구인구직 서비스, 전국 102개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전문 상담사의 진로·취업 상담 등에 대한 추가적인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 부처는 9월 노동부와 국방부, 한기대, 국방전직교육원 주요 인사로 구성된 통합추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통합 후 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령, 예산, 조직, 직원 복리후생 등 구체적인 사안별로 협의를 진행한다. 연내 세부 통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광양항, ‘친환경·스마트 물류’ 향만 도약

여수광양항만공사-민간기업 ‘맞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민간 기업과의 공조를 통해 항만배후단지의 고부가가치 실현 및 국가탄소중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공사는 최근 BS한양, 광양그린에너지와 ‘여수광양항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및 스마트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오는 10월 본격 상업운전을 앞둔 광양 황금알반산업단지 바이오매스 발전소 가동에 발맞춘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인프라 조성 및 행정·제도적 지원 및 배후단지 내 글로벌 제조·물류기업 유치 촉진 ▲안정적인 친환경 연료 수입을 통한 연간 약 4만 5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신규 물동량 창출 및 선진 이송 물류망 운영 등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광양그린에너지가 추진하는 황금산단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사업비 약 6800억원이 투입된 220메가와트(MW) 규모의 대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다.

이 중 해외에서 수입되는 우드펠릿(청정 목질계 바이오 연료)이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통해 유입됨에 따라 광양항에는 연간 약 4만 5000 TEU(월평균 약 3700TEU)에 달하는 견고한 정기 물동량이 새로 창출될 전망이다.

최관호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은 “이번 협약은 광양항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와 스마트 물류가 융합된 복합 거점항만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SHOWGO NEWS

CULTURE *MUSICAL*THEATER

연말, 대학로에서 만나는 특별한 무대!

SHOW MUST GO ON in DAEHAKRO

◆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SHOW는 계속된다! ◆

익숙한 노래가, 특별한 순간이 되는 곳



JUKEBOX MUSICAL · 쥬크박스 뮤지컬

쇼머스트고온 in 대학로



2026.11.6(FRI) — 2026.12.31(THU)

대학로 한성아트홀 2관

연말을 더욱 특별하게!

프리뷰 최대

60%

할인 진행중

지금, 가장 좋은 자리에서
특별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익숙한 노래,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다시, 당신과 함께.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명곡들이
무대 위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대학로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을 만나보세요.

최대철 배우 출연!

“무대 위, 다시 빛나는 이야기”

“좋은 음악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다.”

최대철을 비롯한 실력과 배우들이 선사하는
단 하나의 특별한 무대!



모임·송년회·단체 관람으로 함께 즐기기 좋은 연말 추천 뮤지컬



공연기간

2026.11.6(FRI) —
2026.12.31(THU)

공연장소

대학로 한성아트홀 2관

JUKEBOX MUSICAL · SHOW MUST GO ON

QR 스캔
예매하기 >

예매하기 >

지금, 특별한 무대를 예약하세요!

연말 모임·송년회
단체 관람 문의 환영

02-764-9102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대학로”

충남도, 27개 기업과 1조5303억 규모 합동 투자협약 맺어

기업 투자 총 면적 56.8만㎡
1811명 신규 고용 창출 기대
생산 1.9조, 부가가치 8321억

충남도가 27개 기업으로부터 1조5303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들 기업이 투자하는 도내 8개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투자 협약을 맺었다. 이들 기업 투자 총 면적은 총 56만8672㎡로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질 경우 1811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투자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자동차·우주항공 등 도 주력산업과 미래 첨단산업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우선 천안에는 안산에 공장을 둔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 A사가 1135억원을 투자해 풍세면으로, 자동차용 가스켓 제조 B사는 160억원을 들여 염치일반산단으로 공장을 이전한다. 초고순도 과산화수



충남도 합동 투자 협약.

소 제조업체인 삼영순화는 천안 제5일반산단에 989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한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업체인 덕산네오룩스는 668억원을 투자해 테크노파크 일반산단에 공장을 신설한다.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케이디코로스전지는 365억원을 투자해 성거일반산단 생산 시설을 늘린다.

아산에서는 케이에스오토시스가 350억원을 투자해 신창면에 반도체용 건식진공펌프 공장을 새로 짓는다. 화장품 원

료 제조업체인 아이앤씨바이오에는 150억원을 들여 이산단 5859㎡ 부지에 공장을 증설한다.

서산에서는 에스케이온이 587억원을 투자해 기존 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를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제조 설비로 교체한다.

오도밸리 일반산단에는 우주항공용 첨단금속 제조기업 에이치브이엠이 1165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늘린다. 자동차용 전선 제조업체인 경신전선은 635억

원, 변속기 부품 제조업체인 무봉은 287억원을 투자해 역시 공장을 증설한다.

논산에서는 리튬 이차전지 제조업체인 루트제이드가 271억원을 투자해 가야곡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더한다.

도는 이들 기업 투자로 생산 1조9200억원, 부가가치 8321억원, 고용 1만247명의 유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앞으로 이들 기업 투자가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힘쓰고 인공지능·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우량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충남의 가능성을 믿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모든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이들 기업 투자가 8개 시군의 산업 역량을 강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충남의 균형 성장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metroseoul.co.kr



경주시, ‘韓-중앙아 협력포럼’ 유치 박차

‘韓-우즈벡 지방정부 협력포럼’ 서
주낙영 시장, 경주 개최 의지 밝혀

경주시는 ‘2027년 제4회 한-중앙아 지방정부 협력포럼’ 유치에 나섰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 협력포럼’에 참석해 2027년 제4회 포럼의 경주 개최 의지를 밝혔다.

포럼에는 양국 지방정부 대표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경제·산업과 투자, 문화·관광 분야의 협력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주 시장은 환영사에서 경주와 우즈베키스탄 간 교류 성과를 소개하고, 오는 11월 사마르칸트에서 열리는 제3회 한-중앙아 지방정부 협력포럼에 이어 내년 제4회 포럼을 경주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경주시는 2013년 양국의 고도이자 실크로드 거점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사마르칸트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대학 간 학술교류, 아프리카 시업 궁전벽화 실감콘텐츠 개발, 사마르칸트시 공무원 경주 연수, 관광·경제교류단 상호 방문 등을 이어왔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11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 협력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카슈카다리아주 경제사절단이 경주를 방문해 에너지·환경·농업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경주시는 지난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 경험과 사마르칸트시와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중앙아 지방정부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사마르칸트와 10여 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2027년 제4회 한-중앙아 지방정부 협력포럼을 경주에 유치해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교류·협력의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무안군, 12월까지 관광객 경비 50% 지원

평일 1박 숙박·관광지 2곳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관외 관광객의 여행비 부담을 덜고 지역에 머무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2026 갯벌썩 무안 반값여행’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무안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전신청 관광·방문객이다. 여행 전 사전신청 후 승인을 받은 뒤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관내 숙박업소에 체크인해 1박 이상 숙박하고, 무안항토갯벌랜드를 포함한 관광지 2곳 이상을 방

문해야 한다. 1박형과 연박형 모두 최초 체크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토요일·일요일·체크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유형은 1박형과 2박 이상 연박형으로 나뉜다. 1박형은 관내 인정 지출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팀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 연박형은 인정 지출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 최대 20만 원, 2인 이상 팀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하며, 환급액은 각 유형별 한도 내에서 인정 지출액의 50%로 산정한다.

/무안(전남광주)=양수영 기자

분청문화박물관, K-뮤지엄 지역 순회전시

고흥 운대리 출토 분청사기 등 선행

전통 분청사기부터 현대 작품까지, 분청사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다.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은 전북 남원시 소재 남원향토박물관에서 오는 9월 17일부터 ‘K-컬처의 맥(脈)’, 분청사기를 함께 걷다’ 순회전시를 개막한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년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고흥의 분청사기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다른 지역과 공유하고, 지역 박물관 간 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했다.

전시에서는 고흥 운대리에서 출토된 분청사기부터 분청사기 전국 공모전 수상작, 박물관 입주작가 작품 등을 선보인다. 500여 년 전 생활 속 그릇에서 시작해 오늘의 창작으로 이어지는 분청사기

의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고흥 운대리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당시 도공들의 제작 기술과 자유로운 표현을 살펴보고, 현대 작품에서는 전통적인 분청사기 기법이 오늘날 작가들의 새로운 시선과 조형 감각을 만나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또한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이번 순회전시와 함께 9월 18일부터 시작하는 ‘2026년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도 참여해 박물관과 고흥 분청사기를 알리고, 고흥의 문화유산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고흥과 남원을 문화로 잇고, 분청사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통이 오늘의 창작을 거쳐 미래로 이어지는 분청사기의 여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흥(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시의회, 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실시

대상 기관, 출연기관까지 포함

부산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장이 앞으로 부산시의회의 인사청문을 받게 된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7월 심사를 보류했던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재상정해 11일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기존 17개 기관에서 출연기관까지 포함한 부산시 산하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모두 22곳으로 늘어난다.

청문을 맡는 위원회도 기관 특성에 따라 이원화했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경제진흥원, 벡스코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8개 기

관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맡는다.

부산연구원과 부산의료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문화재단, 영화의전당 등 산업·연구·문화·의료 분야 14개 기관은 해당 기관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직접 인사청문을 진행한다. 시의회는 기관별 현안에 대한 상임위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7월 기관장 공백과 인사청문 대상의 갑작스러운 확대에 따른 행정 공백 등을 우려해 해당 조례안의 심사를 한 차례 보류했다. 이후 대상 기관과 청문 방식 등을 재검토한 뒤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했다.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조율해 낸 사례”라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지역 이모저모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지역 대학생 207명에 장학금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발전소 주변지역인 양남면·문무대왕면·감포읍 주민과 주민 자녀 중 대학생 207명에게 총 2억 38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은 지역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역 인재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월성본부는 주변지역에 만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주민이나 주민 자녀 중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거주기간·학점·재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부산시

오는 20일 ‘세븐브릿지 투어’

부산 도심의 해상교량을 달리는 자전거 축제인 ‘2026 세븐브릿지 투어: 라이딩 인 부산’이 오는 20일 부산 전역에서 개최된다. 세븐브릿지 투어는 부산을 대표하는 4개의 해상교량, 2개의 지하차도, 1개의 터널을 연결해 달리는 전국 유일의 비경쟁형 자전거 투어행사다. 올해는 국내외 라이더 4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전체 코스는 총 77km로 벡스코에서 집결 후 광안대교를 출발해 신선대지하차도,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천마터널, 을숙도대교를 거쳐 공항로 일원에서 반환한 뒤 다시 벡스코로 돌아오는 순환 경로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릉군

추석 여객운임 최대 30% 할인

경북 울릉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출향인과 가족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귀성객 여객 운임을 최대 30% 할인한다.

할인 기간은 23~28일 6일간이며, 포항~울릉 노선을 운항하는 울릉크루즈의 뉴씨다 오퍼호와 대저페리의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참여한다.

뉴씨다오퍼로는 6인실 IN·SEA실·4인실 IN실을 대상으로 기본 운임의 20%를,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전 좌석을 대상으로 기본 운임의 30%를 할인한다.

신청은 16~20일 오후 6시까지이며, 할인 혜택을 받으려는 귀성객은 해당 여객 선사에 여객선표를 예약한 후 울릉군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릉(경북)=김진곤 기자

창녕군

‘韓 지식대상’ 우수상 수상

창녕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 올해 처음 도전해 전국 지자체 군부 및 경남도 안에서 유일하게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행정·공공·민간기관의 우수 지식행정 사례를 발굴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도입과 주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을 이룬 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2012년 제정돼 올해 15회째를 맞았다. 이번 공모에는 213건이 접수돼 20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창녕(경남)=이도식 기자

아모레퍼시픽, 日 브랜드·채널 확대… 설화수 고급시장 공략

설화수, 이세탄 신주쿠 백화점 행사
헤라·라네즈·에스트라 입지 확대
아마존재팬 등 온라인 채널 확장
日·기타 아시아 상반기 매출 17%↑
중화권 의존 낮추며 성장축 다변화

아모레퍼시픽이 일본과 아시아 럭셔리 시장을 공략하며 '뉴 뷰티'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메이크업 브랜드 헤라에 이어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까지 일본으로 본격 진출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10월 13일까지 일본 대표 백화점 이세탄 신주쿠점에서 '설화수' 브랜드 행사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만의 인삼 연구를 집약한 고급 브랜드를 통해 K뷰티를 한층 고도화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브랜드 핵심 제품인 자음생 크림과 윤조 에센스를 전면에 내놓는다. 자음생 크림은 고기능성 항노화 제품이다. 희귀 인삼 사포닌을 6000배 농축한 진세노



일본 이세탄 신주쿠점 본오관 1층에 위치한 설화수 공식 팝업 스토어.

믹스, 인삼 유래 펩타이드 등을 함유해 피부 자생을 돕는다. 윤조 에센스는 스킨케어 첫 번째 단계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자연 숙성을 거친 인삼 소재 독자 성분이 피부 본연의 회복 능력을 활성화해 준다.

아모레퍼시픽은 그동안 구축한 연구개발을 지속 확장한다. 실제로 올해는 설화

수가 세계 최초로 인삼을 화장품에 적용한 'ABC 인삼크림'을 출시한 지 60주년을 맞는다. 이와 함께 노화를 촉진하는 근본 원인에 집중해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홀리스틱 롱제비티'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일본 행사는 백화점에서 진행되는 첫 공식 행보로 앞서 올해 5월에

는 일본 최대 뷰티 편집숍 '앳코스메 도쿄'와 함께 설화수 인지도를 높였다. 앳코스메 도쿄는 소비자 후기를 바탕으로 브랜드를 구성해 현지 소비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은 일본 소비자 특성을 반영해 피부 연구와 브랜드 철학을 알리는 동시에 향후에는 이세탄 뷰티 온라인, 아마존 재팬 등 온라인 채널에서도 소비자 접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앞서 일본에서 뉴 뷰티 브랜드를 적극 강화해 왔다. 특히 럭셔리와 매스 시장을 모두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메이크업 브랜드 헤라가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한류 백화점 우메다점, 도쿄 소재 미츠코시 백화점 긴자점 등에서 연이어 매장을 확보했다. 올해는 글로벌 면세 채널에서 신규 매장을 확대했다. 또 기존 스킨케어 브랜드 라네즈, 더마 브랜드 에스트라 등의 판매 호조도 뒷받침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상반기, 일본 및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누적 매출 2878억원을 올렸다. 분기별로 살펴봐도 매출 증가세는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1분기에는 1431억원, 2분기에는 14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 19% 늘었다.

같은 기간 중화권 매출이 역성장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과 대조적인 성과다. 중화권 상반기 누적 매출은 2025년 2655억원에서 2024년 2394억원으로 10% 줄었다. 다만 중화권 의존도는 낮추면서도 K뷰티의 럭셔리 입지는 다지는 모습이다. 중화권 핵심 유통망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유명 온라인몰 티몰, 샤오홍수 등에서 설화수 신제품 판매와 디지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일본 화장품 시장은 글로벌 뷰티 브랜드들의 격전지이자 소비자 눈높이가 높은 시장 중 하나"라며 "헤라에 이어 설화수까지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함으로써 글로벌 사업 체질 개선과 수익성 다변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쿠팡, K-뷰티 위조품 확산에 대응 강화

화장품협회와 브랜드 보호 논의
AI 탐지·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응

쿠팡이 지난 10일 대한화장품협회(KCA)와 공동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브랜드 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화장품 위조품 유통에 대응하고 지식재산권과 브랜드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K-뷰티 시장 확대와 함께 위조 품목과 유통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관련 업계에서도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에서 적발돼 차단된 K-브랜드 위조 화장품은 2023년 1만6774건에서 2024년 2만3494건, 지난해 3만6116건으로 증가했다.

세미나에서는 쿠팡의 위조품 적발 및



지난 10일 화장품 브랜드 보호 세미나에서 조희경 쿠팡 IP법무팀 이사가 쿠팡의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쿠팡

대응 절차를 소개하고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쿠팡은 악성 판매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조치와 인공지능(AI) 및 모니터링을 활용한 능동적 탐

지, 신고 접수 이후 판매 차단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는 사후 대응 등 3단계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화장품 브랜드의 위조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전용 핫라인도 시범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 야간에도 신고를 접수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쿠팡은 위조품 식별에 필요한 브랜드사의 제품 정보와 유통 특성 등을 공유하는 협력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위조품 적발 및 대응 절차에 반영하고 관련 제도와 운영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 주요 브랜드사와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어 위조품 대응 시스템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롯데百貨, 홍콩 '페닌슐라 부티크' 국내 첫선

본점서 내년 2월까지 카페 팝업 운영
에그롤·팔미에·스파클링 티 등 판매

롯데백화점이 본점 지하 1층에서 내년 2월까지 '페닌슐라 부티크'의 카페 콘셉트 팝업스토어를 국내 최초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페닌슐라'는 1928년 홍콩에서 문을 연 글로벌 호텔 브랜드다. '페닌슐라 부티크'는 페닌슐라 호텔의 식음료 브랜드로 초콜릿과 차, 시그니처 소스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에그롤', '팔미에', '스파클링 티' 등을 판매한다. 카페 섹션에서는 에스프레소를 활용한 음료를 비롯해 다양한 테이크아웃 음료도 선보인다. '말차라떼'는 최근 홍콩 현지 매장에서 품질을 기록한 메뉴다.

팝업스토어 오픈을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페닌슐라 부티크 한국 공식 SNS를 팔로우한 고객에게 페닌슐라 호텔과 홍콩의 랜드마크 일러스트가 담긴 스티커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1층 '페닌슐라 부티크'에서 상품을 들고있는 직원들의 모습. /롯데쇼핑

팩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카페 음료를 비롯한 제품 구매 고객에게는 개별 포장된 팔미에를 한정 수량으로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프리미엄 디저트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페닌슐라 부티크를 국내에 선보이게 됐다"며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기프트 세트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신세계百貨 의정부점, 450평 육아관 새단장

뉴발란스키즈 국내 백화점 최대 규모
22개 매장 개편해 스포츠·육아 강화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이 8층 아동·생활관을 키즈 스포츠 메가샵과 발육용품 전문존으로 새단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의정부와 만리산도시, 양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의 3040 가족 단위 고객 수요를 겨냥해 450평 규모의 8층을 리뉴얼하고 키즈 스포츠와 육아용품 매장을 한데 모았다.

이번 리뉴얼은 총 22개 매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마리페키즈 등 14개 매장이 새단장을 마쳤으며 에프와와 부가부, 스토케 등도 문을 열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뉴발란스키즈 메가샵은 약 50평 규모로, 국내 백화점에 입점한 뉴발란스키즈 매장 가운데 최대 규모다. 신발 매장 면적을 기존 대비 두 배로 확대하고 990, 1906, 740, 퍼포먼스

라인 등 신발 상품군을 갖췄다.

나이키키즈도 보메로와 P6000 등 주요 시리즈의 상품군을 확대해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은 2022년 대구점을 시작으로 키즈 메가샵을 확대해왔다. 매장 규모를 키우고 상품군을 확대하면서 고객수와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7월 문을 연 강남점 뉴발란스키즈 메가샵은 개점 후 두 달간 누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고, 고객 수도 30% 이상 늘었다.

유모차와 카시트, 하이체어 등 발육용품 매장에 강화했다.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증가하고 자녀 한 명에게 소비를 집중하는 이른바 '골드키즈' 현상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달에는 경기 북부 상권 최초로 유모차 브랜드 스토케 단독 매장을 열었다. 부가부 매장도 새단장을 통해 유모차 전 라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8층 리뉴얼 관련 사진. /신세계

인과 하이체어까지 상품군을 확대했다.

리뉴얼을 기념한 구매 고객 대상 행사도 진행한다. 나이키키즈와 뉴발란스키즈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양말과 폴딩박스, 돗자리 등을 한정 수량으로 증정한다. 나이키키즈는 신발을 제외한 일부 품목에 구매 금액별 추가 할인도 적용한다.

/김서현 기자

롯데바이오로직스, 500명 일자리 창출

고용부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청년 채용·산학협력 인재 육성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2022년 6월 설립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송도 바이오 캠퍼스 조성을 목표로 바이오 전문 인력을 적극 채용해 왔다. 생산 거점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신입 및 경력직을 지속 채용한 결과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5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청년 인재 영입을 꾸준히 늘려 임직원 평균 연령 31.7세의 역동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관·산·학 협력 기반의

인재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폴리텍대학교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신중년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재직자 직무 역량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서울·인천 지역 5개 전문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고 실무형 바이오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갖췄다. 전 임직원 대상 스톡옵션 부여를 비롯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및 원격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 남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 자녀 학자금 지원 등도 제공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

“신약 개발, ‘죽음의 계곡’ 건널 글로벌 연결망이 관건”

〈임상과 상업화 사이〉

인터뷰 | 김 지 원 美 스탠퍼드대 ‘스파크’ 부디렉터

#.학계의 뛰어난 기초 연구나 의료 현장의 임상 아이디어가 실제 환자에 적용 가능한 신약으로 출시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미국 식품의약국(FDA) 통계에 따르면 임상 1상에 진입한 후보물질 중 최종 승인을 받는 비율은 14% 수준이다. 나머지 86%가 임상과 상업화 사이(죽음의 계곡)에서 소멸한다.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스파크’ 프로그램은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넌다. 스파크가 세계 최고의 ‘산학협력 기반 연구 지원’ 모델로 꼽히는 이유다.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스파크에서 225개 프로젝트를 졸업했고 상업화 성공률은 52%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4개 스타트업이 창업, 빅파마에 기술 수출된 파이프라인은 30건, 임상시험을 완료한 사례는 25건이다. 프로젝트에 투입된 약 3700만 달러(약 500억원)는 후속 투자 및 외부 생태계에서 유입된 금액만 50억 달러(약 6조 7000억원)라는 경제적 파급효과로 크게 돌아왔다.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의료 기술 사업화 컨퍼런스 ‘및 2026(ME&T 2026)’ 현장에서 스파크를 이끌고 있는 김지원 부디렉터를 만나 스파크만의 성공 노하우와 한국 제약·바이오·의료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최신 지견을 들어봤다.

-스파크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철저한 실무 교육과 생태계 중심의 밀착 교류다. 매주 수요일 대학원생부터 기초 과학자, 의사, 실리콘밸리 전문가들이 직접 모인다. 실제로 FDA 승인 신약을 7개 이상 개발해 본 교수들도 함께한다. 발

표와 현실적인 조건도 이뤄지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수평적 리더십을 통해 시장 표준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하고 있다.”

-뛰어난 연구에도 제품화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지식 부재’다. 학생이나 과학자들은 약물이 얼마나 엄격하고 정교해야 하는지 상용화에 대해선 잘 모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동물실험용 약물 입자와 실제 임상이나 생산 과정의 공정 물질이 순도가 다르면, 기존 비임상 데이터는 전량 폐기해야 한다. 둘째는 ‘고립된 연구 문화로 인한 협업 부재’다. 신약개발을 개인 공부나 다름없이 다양하게 융합하는 팀 스포츠로 받아들이길 바란다. 셋째는 ‘비즈니스적 타당성 부족’이다. 이 기술이 경제적인지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은.

“최종 목적지를 먼저 설정하고 거꾸로 작업하는 것이다. 스파크에서는 참여 6주 이내에 모든 팀이 ‘표적 제품 프로파일(T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 ‘스파크’ 프로그램의 김지원 부디렉터.

/한림대학교 의료원

2006년부터 225개 프로젝트 졸업
“사업성 없다면 과감한 중단도 중요
연구자와 산업계 연결, 성공 좌우”

arget Product Profile)’을 수립한다. 개발하려는 제품이 규제 기관에서 승인받고 시장에서 환자에게 선택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미리 점검한다. 왜 기존 치료제 대신 이 제품을 써야 하는지, 부작용과 위험 대비 이점, 보험 상환이나 제조 원가 등이 핵심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중단하는 결단도 필요하다.”

-성공과 실패의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

“스파크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의 데이터를 추적해 스파크에 선정된 팀과 탈락한 팀의 후속 성과를 비교했다. 창업으로 이어진 건수가 선정 팀 24개 대 탈락 팀 3개로 무려 8배 차이가 나타났다.

상업 자금 조달 및 연구비 확보 규모 역시 40~5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스파크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연간 5만 달러의 소액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후속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핵심은 액수가 아님을 의미한다. 스파크는 과학자, 업계 실무자, 투자자를 가장 빠른 경로로 이어주기 때문이다. 혼자서는 만날 수 없는 규제 전문가나 빅파마 관계자를 스파크라는 안전지대 안에서 즉시 연결해 실패 위험을 줄인다.”

-시장 논리를 따르면서도 공공 의료에 관심을 두는 배경은.

“수익성이 낮으면 외면받는 것은 사실이나 소외 영역을 혁신 기술로 채우는 것은 중요하다. 희귀 질환 또는 소아나 임신 부처럼 치료가 절실한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공공 편익 또는 정부 지원을 받는 데

학과 기관의 중요한 책무이자 스파크가 지향하는 가치다.”

-아시아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대만과 일본은 이미 전 세계 40여 곳으로 확산되어 있는 스파크 네트워크를 영리하게 활용한다. 해외 연구가 없어도 스파크를 통해 교류를 늘리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의료 서비스가 독보적이다.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구축된 시스템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도화됐다. 임상연구 역량과 인재 우수성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훌륭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가 준비되어 있어도 ‘글로벌 상업화 전략’이 부족하면 소용없다. 한국이 가장 많이 겪는 실수는 국내에서 미국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순간 발생하기도 한다. 법적·규제적 난관이나 해외 벤처캐피털(VC)이 투자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실리콘밸리를 비롯해 글로벌 곳곳에서 촘촘한 네트워크를 갖춰야만 제값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제약·바이오·의료에 도약하려면.

“독자 기술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육성해야 한다. 그래서 임상 인프라와 글로벌 투자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빠르게 세계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대규모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과 플랫폼 바이오텍도 인성적이다. 다만 독점적인 후보물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생태계의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유한양행 텍라자, ‘한국형 혁신 신약’ 인정

프리 갈리앵 코리아 최우수 제약제품상
혁신성·임상 가치·사회적 기여도 충족

유한양행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제1회 ‘프리 갈리앵 코리아 (Prix Galien Korea)’ 시상식에서 비소세포폐암 신약 ‘텍라자’가 최우수 제약제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프리 갈리앵은 1970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세계적 권위의 생명과학 분야 시상이다.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진행된 프리 갈리앵 코리아는 혁신성, 임상적 가치, 사회적 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시상 기준으로

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우수 제약제품을 비롯해 최우수 바이오제품, 최우수 의료기술, 최우수 디지털헬스 솔루션, 최우수 스타트업 등 5개 부문에서 시상이 진행됐다.

텍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제로 허가된 3세대 EGFR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다. 2015년 오스코텍 자회사 제노스코로부터 후보물질을 도입하여 자체개발을 진행한 뒤, 2018년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에 기술수출을 통해 글로벌

신약으로 발돋움하면서 한국형 개방형 혁신 R&D 모델로 자리매김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단독요법으로 국내 31호 신약 허가를 획득한 텍라자는 2023년 6월 1차 치료제까지 적응증을 확대했으며, 2024년 8월 J&J의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와 병용요법을 통해 국내 항암신약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하며 글로벌 진출에 성공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텍라자는 더 나은 치료 옵션을 기다려 온 폐암 환자들을 위해 연구진, 의료진, 환자 및 산업계가 합



조옥제 유한양행 대표(오른쪽)가 지난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제1회 ‘프리 갈리앵 코리아 (Prix Galien Korea)’ 시상식에서 프리갈리앵 코리아 최우수 제약제품상을 수상하고 있다

계 만들어낸 혁신의 결과”라며, “지속적인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전 세계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넓히고,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아데시’, 안티에이징 제품군 확대

한미사이언스, 고민별 맞춤 케어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의 프리미엄 다마 코스메틱 브랜드 ‘ADESII(아데시)’가 안티에이징 제품군 확장을 위해 튜브형 신제품 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은 ▲PLA 리프팅 세럼 ▲피토 글로우 앰플 ▲펩타이드 넥앤아이 크림 총 3종이다. 신제품에는 ADESII의 독자원료인 ‘H-EGTI’가 적용됐다. H-EGTI는 식물 유래 천연 아미노산 ‘EGT(Ergothioneine)’와 항산화 부스팅 성분 ‘레지스트레스(Resistress)’를 결합한 복합원료로, 외부 자극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속

탄력을 채워준다.

‘PLA 리프팅 세럼’은 실 리프팅 원리에 착안한 고기능성 리프팅 세럼이다. 실 리프팅 성분인 PLLA(Poly L-Lactic Acid)와 동일한 PLA 성분이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촉진하며, 피부에 밀착되는 필름막을 형성한다.

‘피토 글로우 앰플’은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미백 집중 케어 제품이다. H-EGTI에 쏘여 추출 미강 PDRN과 트리플 토닝 솔루션을 더했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2주 만에 피부 광채가 21.09% 향상됐으며, 피부 겉과 속의 멜라닌은 15.28% 완화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펩타이드 넥앤아이 크림’은 눈가와 목



한미사이언스 ADESII 튜브형 신제품 3종. (왼쪽부터)PLA 리프팅 세럼, 피토 글로우 앰플, 펩타이드 넥앤아이 크림.

부위의 깊은 주름을 관리하는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이다. 5중 펩타이드 복합체와 식물 유래 천연 필름 포물러를 담아 유효성분의 흡수와 밀착력을 높였다.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목 주름 15.12%, 피부 밑도 14.15% 개선 효과를 검증받았다.

/이세경 기자

식품산업협회,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식품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 보급과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에 나선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11일 서울 협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식품 부문 태양광 및 에너지효율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식품 제조·생산시설의 태양광 보급과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과 지원사업 정보를 공유한다. 식품업계의 태양광·에너지 효율·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수요를 조사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11일 서울 협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식품 부문 태양광 및 에너지효율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참여기업도 발굴할 예정이다.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관련 정책과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의 수요를 파악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AX(인공지능 전환) × 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 · 모빌리티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2026년 9월 16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주 제 'AX(인공지능 전환) × 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 · 모빌리티
일 시 2026년 9월 16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물류&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3층 페럼홀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도보 3분)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0	〈축사〉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14:40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 : 미래모빌리티 G3 혁신전략
	14:40~15:10	박민영 인하대학교 교수 : 변화, 혁신, 그리고 물류
강 연	15:10~15:40	김병우 대동그룹 개발부문장 전무 : 농업 모빌리티의 AX 및 GX 현황
	15:40~16:10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 : New Commerce에 대응하는 물류
	16:10~16:40	노제경 마스오토 부대표 : 자율주행이 바꿀 한국 물류산업의 미래와 과제 -부산항 수출화물에서 미국 대륙횡단 왕복 노선까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NH농협은행 경영진, 제주서 '농심천심' 실천

NH농협은행은 지난 11일 제주 서귀포 소재 하우스 감귤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해 '농심천심(農心天心)' 실천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농업·농촌과 함께하는 NH농협은행의 역할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과 영업본부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대중기협력재단, DMZ 일원 산림훼손지 복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지난 11일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일대에서 '민·관 협력 산림훼손지 식재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효성그룹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DMZ 일원의 산림훼손지를 복원하고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중기협력재단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족초청행사… 2800명 참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12일 인천 송도 사옥에서 임직원과 가족 2800여 명이 함께한 '2026 가족초청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옥 투어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사내 정원을 배경으로 한 버스킹 공연과 포토존도 함께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더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BGF리테일, '굿 프렌즈 데이' 개최… 100명 참석

BGF리테일은 지난 11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둘레길에서 '2026 굿 프렌즈 데이'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에는 민승배 대표를 비롯한 BGF리테일 임직원 30여명과 중소 협력사 임직원 60여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BGF리테일



제주항공, 준법경영 실무 맞춤형 교육 실시

제주항공은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서울지사에서 공정거래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경영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김앤장 소속 법률전문가를 초청해 계열사와 거래처 간 거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리스크 예방을 주제로 법률 설명뿐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와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제주항공

삼성전자, '갤럭시 AI 클래스' 개편… AI 활용능력 높인다

'갤럭시 AI 클래스' 2학기 학급 모집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 교육 확대

초·중등 공교육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삼성전자도 미래세대의 AI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 강화에 나섰다.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AI를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능력까지 교육의 무게중심을 넓히는 모습이다.

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전국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갤럭시 AI 클래스' 2학기 참여 학급을 모집한다. 담당 교사가 삼성닷컴에서 학급 단위로 신청하면 수업 일정과 희망 과목 등을 협의해 참여



'갤럭시 AI 클래스' 수업 모습.

/삼성전자

학급을 확정한다.

갤럭시 AI 클래스는 전문 강사와 보조 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AI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2025년 1학기부터 본격

운영돼 매 학기 진행하고 있다.

올해 2학기부터는 갤럭시 AI 기능을 체험하는 데서 나아가 AI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역량까지 기를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개편한다. 지난

현대차, '포레스트런' 마무리… 나무 10만 그루 기부

6500명 참가… 기부처 WFP 선정

현대자동차가 고객 참여를 환경보호 실천으로 연결하는 친환경사회공헌 캠페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계 복원에 나섰다.

현대차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공원과 서강대교 사이 10km 구간에서 열린 '포레스트런 2026 파이널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6500명이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의 캠페인 참여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 등을 기반으로 나무 10만 그루를 기부했다.

포레스트런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깨끗한 하늘을 만들자는 취지로 2016년 시작됐다. 참가자들이 달리기 참여하면 그 결과가 실제 나무 기부와 식재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고객의 일상적인 참여를 사



현대차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포레스트런 2026 파이널런' 현장. /현대차

회적 가치 창출로 연결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적 지원 기관인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공식 기부처로 선정했다. 기부된 나무 10만 그루는 WFP의 '하프문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변화와 토지 황폐화로 사막화가 진행 중인 아프리카 니제르에 식재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번 행사에서 친환경과

자원순환의 의미를 강조했다.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기념 티셔츠와 자동차 패에어백을 재활용한 가방 등을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고, 전동화 차량 전시와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포레스트런은 올해를 포함해 11년간 누적 참가자 26만명 이상을 기록했으며, 총 13만3850그루의 나무를 기부·식재했다.

/양성운 기자 ysw@

귀뚜라미그룹, 과학기술 인재 120명에 장학금 2억 전달

최진민 회장, 미래인재 육성 팔 걷어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이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귀뚜라미그룹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재학생 120명에게 총 2억원의 '귀뚜라미 장학금'을 후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24일 DGIST 재학생 50명에게 5000만원, 9월 4일 GIST 재학생 20명에게 5000만원을 각각 지원한 데 이어 11일에는 UNIST 재학생 50명에게 1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미래 과



지난 4일 열린 광주과학기술원(GIST) '귀뚜라미 장학금 수여식'에서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오른쪽)과 GIST 임기철 총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학기술 분야를 이끌 학생들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이창동 감독 '가능한 사랑', 베니스국제영화제 은사자상

한국 영화 최초 심사위원대상

이창동(72) 감독이 8년 만에 내놓은 신작 '가능한 사랑'으로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의 새로운 기록을 썼다.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받은 지 24년 만에 베니스에서 다시 트로피를 들어 올린 이 감독은 수상의 기쁨보

다 영화가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앞세웠다.

이 감독은 12일(현지시간) 열린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가능한 사랑'으로 은사자상인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한국 영화가 베니스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환 기자 kdh@

이번 수상으로 이 감독은 '오아시스' 이후 24년 만에 베니스영화제 주요 상을 다시 받게 됐다. 동시에 8년의 공백을 깨고 선보인 '가능한 사랑'은 인간관계의 단절과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이 감독의 오랜 문제의식을 다시 세계 영화계에 던진 작품이 됐다.

해 갤럭시 AI 기능을 직접 활용하는 체험형 교육에 무게를 뒀다면 올해는 AI 기본 소양을 먼저 익힌 뒤 이를 관심 분야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교육 범위를 넓힌 셈이다.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갤럭시 AI 클래스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AI가 아닌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AI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AI 활용 역량 함양을 위한 과목을 비롯해 창의적 체험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이랜드재단 영어교육 지원

이랜드재단이 보 호아동과 자립준비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영어교육 지원에 나선다. 아동기의 기초학습부터 청년기의 취업 준비까지 성장 단계에 맞춘 교육을 제공해 자립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랜드재단은 지난 11일 양립사회적 협동조합과 영어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단계별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영일 이랜드재단 대표(사진)는 "교육격차가 진로와 직업 선택의 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성장 과정 전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맥 부산국제영화제 후원

한맥이 부산국제영화제와 2년 연속 공식 후원사로 나선다. 영화제 기간 브랜드 부스를 운영하고 공식 프로그램과 부산 주요 지역 프로모션 등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한다.

먼저 개폐막식 리셉션과 '비전의 밤', '아주담담', '와이드앵글 파티' 등 주요 공식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맥 생맥주와 '한맥 엑스트라 크림리 생 캔' 등을 선보인다.

영화의전당에는 브랜드 부스 '스무스라운지'를 마련한다. 한맥 생맥주를 판매하고 팝콘을 함께 구성한 패키지와 스티커 포토부스, 휴식 공간 등을 운영한다.

또 전포동 외식업장에서 영화제 폐막일까지 '한맥마실' 프로모션을 열고 한맥 생맥주와 업장별 메뉴를 함께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부음 ▲김종원씨 별세, 김상식(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씨 부친상=12일, 부산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15일. 051-893-4444

불법 저작물 링크 규제 강화 ‘개정 저작권법’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나 이른바 ‘링크 사이트’는 콘텐츠 업계의 오랜 골칫거리였다. 이들은 저작물을 자신의 서버에 직접 올리지 않고 해외 서버의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만을 모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링크 제공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계속 문제되어 왔다. 그런데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이 이 문제에 관해 입법적으로 답을 제시했다.

먼저 종래의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링크에 대해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 페이지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전송·전시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등).

또 “링크 행위가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의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

았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이러한 태도는 2021년에 한 차례 변경됐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링크 행위가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링크 행위자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방조’였기에 정범인 업로드의 범죄가 전제되어야 했고, 반대의견이 지적했듯 입법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개정 저작권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 저작권법은 제124조 제1항에 제4호와 제5호를 신설해 ▲불법복제물 임을 알면서 그 연결정보(링크)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나 SNS 게시판·대화방 등을 운영하는 영리목적의 행위 ▲불법복제물 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그 연결 정보를 위 사이트 등에 영리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각각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

로 규정한 것이다. 방조가 아니라 침해로 의제 되므로 정범의 범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어졌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저작물 링크 게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강화됐다. 개정법은 제125조 제4항을 신설해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판단 시에는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직접 침해에 대한 벌칙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결국 개정 저작권법의 핵심은 ‘불법복제물’이라는 인식과 ‘영리목적’에 있다. 일상적인 링크 공유까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를 다루는 사업자라면 자사 플랫폼의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이러한 링크가 쌓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운영 방식이 영리목적으로 평가될 여지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눈치보는 ‘연금개혁’



기지 수첩

안 승 진
(금융부)

정부가 최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통해 기초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공개했다. 소득 구간 하위 0~45%에는 올해 35만원이었던 월 지급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늘리고, 소득 하위 45~70% 구간에는 내년도 지급액을 동결하는 내용이다. 소득 하위 70%의 고령자에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며 기초연금의 개혁 방향성을 제시했다. 인구구조 변화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논의된 것은 고소득 수급자의 연금액을 줄이

고, 저소득 수급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하후상박’을 제시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공개된 개편안에는 ‘하후’만 남았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들에 대한 소급적용이 없을 것이라는 예고에도 기초연금 수급을 앞둔 중·장년층의 반발이 거셌고, ‘표심’에도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연금재정 절감을 위해 추진됐던 개편안은 결국 연금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가 주도해 연금개혁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제도의 개혁 필요성은 국민연금의 최초 도입 이후 계속됐지만,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권의 외면을 받았다. 연금개혁이 뒤로 미뤄지는 동안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졌고,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처럼 ‘반쪽짜리’ 연금개혁이 계속된다면, 연금제도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민주당 대표 재임 당시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우리 당이 양보하겠다”라며 연금개혁을 밀어 붙였다. 이듬해인 2025년에도 연금개혁 결과에서 일부 내용이 빠진 것을 두고 “청년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이 아닐텐데도, 연금개혁을 밀어 붙이는 추진력은 약해진 것이다.

정치인이 표심을 의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연금개혁을 위해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썸법’보다 ‘미레’를 우선해야 한다. 국회는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해 연금개혁 논의에 나서야 하며, 국민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정부는 자체적인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환기하고 다수가 납득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연금개혁은 다수가 동의할 때에만 성사될 수 있다.

/asj1231@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4일 (음 8월 4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모든 부귀영화가 내 것입니다. 60년생 지금까지 해왔던 자세로 계속 유지하세요. 72년생 업무에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84년생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됩니다.



소

49년생 즐거운 날을 보내게 됩니다. 61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 것을 잘 간수하세요. 73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85년생 인간관계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로랑서

50년생 모든 일에 자중하세요. 62년생 고생한 보람도 없이 이윤도 남지 않게 됩니다. 74년생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쓰세요. 86년생 가는 곳마다 사고가 기다리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끼

51년생 조금 더 조심해서 행동하세요. 63년생 되도록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세요. 75년생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얽혀만 가게 됩니다. 87년생 되도록 주변에 쉽게 휩싸이지 마세요.



조

52년생 조그만 소망은 이루어지니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64년생 주위사람들 모두가 귀하의 편을 들어줍니다. 76년생 재물은 이 길합니다. 88년생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뱀

53년생 좋은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65년생 현재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77년생 다른 일은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89년생 이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말

54년생 건강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66년생 인간관계가 많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78년생 안정된 생활이 이어질 것입니다. 90년생 칭찬이나 혹은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

55년생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깁니다. 67년생 기대했던 결과는 좋을 것입니다. 79년생 주변의 사람들과 충분히 의논하고 실천에 들어가세요. 91년생 반갑고 좋은 소식이 기대됩니다.



원숭이

56년생 자신들에게 안부 전화하도록 하세요. 68년생 친척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합니다. 80년생 항상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92년생 일에 중심을 잘 잡으세요.



닭

57년생 방식을 바꾸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69년생 약점이 들어 날 수 있습니다. 81년생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경쟁자 나타납니다. 93년생 금전, 직장 이성운 모두 불리합니다.



개

58년생 조심 조심 또 조심하세요. 70년생 말 실수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82년생 의외의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94년생 지금까지의 삶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돼지

59년생 사소하는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71년생 의외의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83년생 금전운은 대체로 무난합니다. 95년생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김상회의四季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정치권과 언론에서 개헌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개헌이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국가의 틀을 다시 만드는 작업인 만큼, 개헌 논의는 나올 때마다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사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 헌법은 한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다. 국가가 만드는 일반 법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으며, 국가기관의 권한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법률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헌법은 일반 법률보다 개정 절차가 까다롭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이다. 경성은 말 그대로 딱딱하다는 뜻이고, 연성은 부드럽다는 뜻이다. 경성헌법은 일반 법률보다 바꾸기 어렵게 만든 헌법을 말한다. 경성헌법을 개정하려면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 특별한 의결 정족수를 요구하거나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식이다. 반대로 연성헌법은 일반 법률과 비슷하거나 크게 다르지 않은 절차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을 말한다. 헌법의 내용을 바꾸는 일이 상대적으로 쉽다. 우리나라 헌법은 경성헌법에 해당한다. 절차에서 먼저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다. 개헌안이 제안되면 일정 기간 공고를 거쳐야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 되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국민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개헌이 확정된다. 헌법에 대한 지식을 갖춰놓으면 개헌에 관한 뉴스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다. 헌법을 알면 개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도 조금은 더 보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94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9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세익한빌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세로운 고난이도의 퍼즐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9 6 1 8 2 7 9 4

8 1 9 7 1 9 2 8 6

7 2 4 8 6 9 8 9 1

6 8 8 2 9 1 2 7 9

9 7 2 4 9 8 6 1 8

9 4 1 6 7 8 8 2 9

1 8 7 9 2 6 9 2 8

4 9 9 8 8 7 1 6 2

2 6 8 9 1 4 9 8 7

9 2 4 8 6 9 1 7 8

8 7 9 9 1 8 2 6 4

1 8 6 7 2 4 8 9 9

2 9 2 8 7 1 9 8 6

8 8 1 2 9 6 7 2 9

9 6 7 2 9 8 8 4 1

6 9 9 1 2 7 4 8 8

2 4 8 9 8 9 6 1 7

7 1 8 6 8 4 9 9 2

‘등록금 0원’ 효과?... 일반 지방국립대 수시 지원 12.6% ↑

지방국립대 증가율, 지거국의 2배
금오공대 지원자 58.2% 증가
대학·지역별 양극화는 ‘뚜렷’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지방 거점국립대보다 일반 지방국립대의 지원자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립대 등록금 0원’ 정책이 지거국보다 일반 지방국립대 지원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종로학원이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지거국 9개교와 지방국립대 12개교, 지방사립대 65개교의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거국 지원자는 전년보다 1만4477명(5.2%) 증가했다. 지방국립대는 1만7308명(12.6%), 지방사립대는 3004명(0.5%) 늘었다. 지방국립대 분석에서는 교대 등 특수대학은 제외됐다.

평균 경쟁률도 일제히 상승했다. 지거국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8.65대 1에서 올해 8.96대 1로 올랐다. 지방국립대는 같은 기간 6.44대 1에서 7.16대 1로, 지방사립대는 5.75대 1에서 5.80대 1로 상승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 7일 경기 수원시 영복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수능 실시요강 등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특히 일반 지방국립대의 지원자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금오공대는 지원자가 전년보다 3139명(58.2%) 늘었고, 경국대도 2406명(42.1%) 증가했다. 군산대는 2779명(36.9%), 순천대는 2100명(29.9%), 목포대는 2256명(29.3%) 각각 증가했다.

반면 대학별 편차도 컸다. 한국교통대 지원자는 전년보다 545명(4.4%) 줄었고 한국해양대는 982명(9.2%), 목포해양대는 881명(16.2%) 감소했다. 국립대 가운데 지원자가 58.2% 증가한 대학이 있는 반면 16.2% 감소한 대학도 나타난 셈이다.

지거국에서도 대학별 차이가 나타났다. 경북대는 지원자가 전년보다 0.9%, 충북대는 17.1% 감소했다. 올해 지거국 경쟁률은 경북대가 13.19대 1로 가장 높았고 부산대 11.55대 1, 충남대 9.58대 1, 전북대 8.74대 1, 충북대 8.54대 1, 경상국립대 8.09대 1, 강원대 7.34대 1, 전남대 6.64대 1, 제주대 5.12대 1 순이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정 대학인 부산대·충남대·전남대의 지원자는 전년보다 1만414명(11.6%) 증가했다. 나머지 지거국 6개 대학은 4063명(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올해 지거국 지원자 증가에는 지역·사제 신설 효과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거국 전체 지원자는 전년보다 5.2% 증가했지만, 2027학년도 신설된 지거국 지역·사제 지원자 2311명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4.3%에 그쳤다. 이에 따라 등록금 0원 정책이 지거국으로의 급격한 지원자 쏠림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사립대도 전체 지원자는 전년보다 0.5% 늘어 국립대 등록금 정책에 따른 급

격한 지원자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컸다. 호남권 지방사립대 지원자는 2723명(3.2%), 부울경은 1756명(1.2%), 충청권은 2262명(0.9%), 대구·경북권은 942명(0.8%) 증가했다. 반면 강원권 3개 사립대는 4679명(17.1%) 감소했다.

종로학원은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지방 학생들이 지역 소재 대학에 머무르는 최근 경향이 올해 입시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동시에 국립대 등록금 0원 정책의 영향은 지거국보다 일반 지방국립대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지만 대학과 지역에 따라 지원 양상이 크게 엇갈렸다고 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7학년도 수시 지원 상황을 볼 때 등록금 정책이 입시 지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향후 지방 거점국립대 간, 국립대 간, 지방사립대 지역 간 지원자 격차가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초등학교 스쿨존, ‘사고 제로’ 도전

서울시교육청, 안전 캠페인 전개
9월 셋째주 교통안전 주간 지정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9월 셋째 주를 교통안전 주간으로 정하고 서울 전체 초등학교에서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을 전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통학 안전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초등학교 11곳을 선정해 현장 합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에는 교육지원청, 자치구, 경찰서 등이 참여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오는 16일 서초구 서울방배초등학교에서 열리는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학교 인근 통학로의 위험 요소를 살피고 학부모와 ▲서



어린이안전우산 이미지. /서울시교육청

초구청 ▲방배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과 통학환경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대상 학교에는 어린이 안전우산과 옐로

카드 키링 등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한다. 옐로카드 키링은 서울 초등학교 대상 교통안전 슬로건 공모전 대상작 “빨간불엔 얼음, 초록불엔 살금”을 담아 제작했다. 이번 교통안전 주간에 서울 전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전원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현장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안전한 등하굣길은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 경찰,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할 때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추석 연휴, 서울 막차 늘리고 응급실 운영

서울시, 추석대책 23~28일 가동
병·의원·약국 하루 1509곳 영업

추석 연휴 갑자기 아프더라도 서울 시내 74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늦은 밤 서울에 도착하는 귀경객을 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는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서울사랑 상품권 2650억원어치도 발행된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2026 추석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51곳과 응급실 운영병원 23곳 등 총 74곳이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된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의료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곳과 서울시 동부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20곳이다.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우리아이안심병원’ 8곳과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곳도 운영한다.

연휴 나흘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누적 약 6036곳으로 하루 평균 1509곳이다. 병·의원 613곳, 약국 896곳 수준이다.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서울시 추석 연휴 종합정보 홈페이지와 응급의료포털, 각 자치구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120 다산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늦게 서울에 도착하는 귀경객을 위해 대중교통 막차도 연장한다. 추석 다음 날인 26일과 27일 이틀간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행한다.

같은 기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도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연장한다.

/이현진 기자

수원시의회, 4조1677억 추정 확정

도시개발·철도망도 속도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난 11일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1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비롯해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 수정가결됐으며,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가결됐다.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처리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조1677억원 규모로 수정가결됐다.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됐다.

이와 함께 ▲203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매탄1구역(금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2036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영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등에 대한 의견제

시도 이뤄졌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처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윤일영·서지연·최성호·박혜연·배준서 의원이 나서 ▲수원형 교육협력 모델 구축 ▲영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추진 ▲민관협력 DMO 구축 ▲축제와 지역상권 연계 ▲사회적 참사를 아우르는 통합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김미경 의장은 “안전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제시됐지만 충분한 토론과 의회 절차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존중하면서 시민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메트로 한줄뉴스



▲바레인, “오만이 제안한 호르무즈 회의 참석하지 않을 것”
▲이란, “오만과 합의가 호르무즈 즉시 재개방은 아냐”...美 조건 이행에 달려 /사진 뉴스시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상선 피격...1명 사망·3명 부상
▲트럼프 “이란, 사우디 동서 송유관 공격 배후가 능성”

▲美 민주당, 오는 11월 중간선거 하원 다수당 노린다...“트럼프 부패 조사할 것”
▲243명 태운 인도네시아 여객선 연락 두절...103명 구조·1명 사망



아모레퍼시픽
일본·아시아
럭셔리뷰티 공략
L1

metro®

Life

美 스탠퍼드
바이오 상업화
성공법
L2



“힘들다 말 못 하는 남성들… 혐오 아닌 돌봄의 언어 필요해”



새벽을 여는 사람들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이 한 대표

‘이대남’이라는 단어가 시대의 낙인이자 혐오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10대들의 우경화와 백래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남성들의 목소리는 양극단으로 흩어진다. 과연 한국 사회에서 10대부터 중장년에 이르는 남성들에게 페미니즘을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메트로경제 신문〉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공간에서 2017년부터 단체를 꾸려 남성성과 성평등을 고민해 온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하 남함페)’ 이한 대표를 만났다. 초·중·고교 교실부터 군부대, 직장, 노인 단체까지 발이 닿는 곳마다 성평등 교육을 진행해 온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 대표는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청년 남성들의 혐오와 고립에 대해 단호하게 진단했다. 개인의 인성 탓으로 돌리거나 세대 전체를 이상하게 낙인찍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성 연대의 파라미터 말바다에 있는 이들은 ‘남자 맞아?’, ‘운동도 못하네’ 같은 비난을 받으며 남성성을 끊임없이 의심받아요. 이 폭력적인 위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손쉬운 생존 방식으로 여성 혐오를 택하는 거죠. ‘나 여자 아니야, 재벌보단 나아’ 라면서요. 문제는 이들이 힘들다고 말하거나 기댔 줄 모른다는 점입니다. 약한 소리를 하면 남성 집단에서 탈락할까 봐 두려워 말을 못 해요.”

그는 성폭력 피해 청소년 교육 현장에서 마주한 아이들의 모습이 일반적인 편견과 사뭇 달랐다고 회상했다. 성평등 교육을 조롱하고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 같았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처음엔 깔려거리거나 무서울까 봐 걱정했죠. 그런데 막상 만나보면 다들 기가 막 죽어 있어요. 방치되고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돼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인생 끝났다’며 자책하던 아이들도 이제 얼마나 구조적인 문제인지 설명해주면 깊이 반성해요. ‘이런 교육을 좀 더 일찍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안타까워하죠. 10대 교실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혐오 표현을 쓰다가도 어른이 차분하게 이유를 설명해주면 수긍하고 멈춥니다. 다만 학교가 갈등을 피하려 무균실처럼 침묵하니 아이들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남성들이 겪는 고통과 외로움을 설명할 언어가 없는 현실이 나쁜 언어를 낳았다고 짚었다.

“누군가 ‘나 힘들어’라고 했을 때 ‘너만 힘들냐, 술이나 마시자’로 끝나버리면 고통은 언어화되지 못해요. 그 공백을 파고든 게 정치인들이었죠. ‘너 억울하지? 페미 때문이야’ 라며 혐오의 언어를 주어진 겁니



이한 남성과 함께하는페미니즘모임 대표가 메트로경제 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성진 기자 ksji@

2017년부터 성평등 외친 활동가
교실·군부대 등 찾아 성평등 교육
‘남성성 위계’ 속 자책·고립 심화
생존방식으로 여성 혐오 선택해

고통 설명해줄 페미니즘 언어 필요
대화 프로젝트 ‘어색한 사이’ 진행
젠더간 속도·시차 좁히는 다리로

무균실 교실 아닌 치열한 소통 필요
고통·불안 꺼내놓고 새 길 찾아야

다. 20대 여성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극우화되지 않은 건 그들의 처지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네 탓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야’라고 말해주는 페미니즘이라는 언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에게도 똑같은 언어가 주어져야 해요. ‘너도 돌봄이 필요하고, 스스로 겪는 괴로움은 개인이 못나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라고요.”

남함페가 진행 중인 ‘어색한 사이’ 프로젝트도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에 있다. 어색한 사이 프로젝트는 페미니즘에 관심은 있지만 또래 남성 집단에서 말을 꺼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가족이나 지인의 신원을 받아 일대일로 만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젝트다. 9월 현재까지 10여 명이 프로젝트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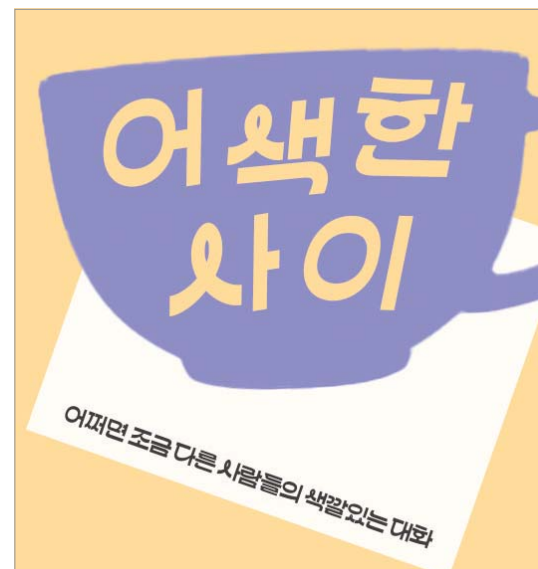
“당사자끼리 이야기하면 감정이 앞서 싸움이 되기 쉬운데, 제삼자인 제가 중간에 서면 방어기제 없이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으세요. ‘애인에게 이런 말이 불편했다’고 하면 저도 ‘이런 맥락이었을 것 같다’고 조율해 주죠. 남성과 여성 사이의 페미니즘을 받아들이는 속도와 시차를 좁히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는 학교와 교육 현장의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백 명이 모인 강당 강의나 컴퓨터 화면만 켜두는 방송 교육으로는 어떤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에게 성평등 이야기를 꺼내면 처음엔 달칵해요. 10대 때는 차별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우리친장이나 돌봄 노동 같은 현실을 짚어주고 페미니즘의 본래 역사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여요. 인터넷에서 보고 배운 건 많은데, 정작 교실에서 제대로 질문하고 대



성평등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한 대표.



페미니즘 이야기를 나누는 ‘어색한 사이’ 프로젝트. /남함페

답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교실이 갈등을 피하려 무균실처럼 굴면 아이들은 법정이나 광장에서 싸우게 됩니다. 교실 안에서 치열하게 묻고 답해야 해요.”

인터뷰 말미, 그는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기사를 접할 남성들을 향해 안타까움과 애정이 섞인 말을 남겼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와 고독사의 다수가 남성입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관계망이 취약하며, 아프다는 말을 삼키다 극단으로 내몰린 결과예요. 남성들이 마주한 그 깊은 불안과 고통을 함께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고립 속에서 버티지 말고,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이정후, 샌디에이고전 4타수 1안타…시즌 타율은 0.279 유지
▲박보검, KPGA 투어 KB금융 챔피언십 우승…데뷔 첫 메이저 정상
/사진 뉴시스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 ‘임시 감독’ 로베르트 모레노…“한국 국민, 대표팀에 자부심 갖게 될 것”
▲손흥민, 캔자스시티전 최전방 공격수…로스앤젤레스FC 2연승 도전 선봉장

▲백승호, 교체 출전 4분 만에 결승골…버밍엄은 2-1 역전승
▲‘2024 파리 패럴림픽 금’ 조정두, 2026 세계선수권 10m 공기권총 2관왕

메트로  한줄뉴스

High Five, Korea!

대한민국과 함께 자란 KT&G 자란 만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청년과 문화예술인의 도전이 계속되고

담배·인삼 농가와 국군 장병의 내일이 튼튼해지며

환경은 깨끗해지고 주주가치는 높아지도록

KT&G는 나눔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힘껏 응원합니다

